

2·3대 모두 '중도 사임'... 지구촌교회, 30년 만에 최대 위기

진재혁 목사 이어 최성은 목사도 갑작스레 사임
이동원 목사 개척, 1994년 창립 후 폭발 성장
2010년 진재혁 목사 부임했지만 8년 후 사임
2019년 부임한 최성은 목사는 5년 만에 사임

지난 2019년 지구촌교회 제3대 담임으로 부임했던 최성은 목사의 사임 소식이 지난 14일 갑작스레 전해졌다. 앞서 제2대 담임이었던 진재혁 목사 역시 중도 사임했던 터라 그 충격이 배가 되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 1994년 창립돼 올해 30주년을 맞은 지구촌교회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교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연혁에 따르면 미국에서 목회하던 이동원 목사는 1993년 한국에서의 교회 개척을 요청받았고, 그해 1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구촌교회를 시작했다. 이듬해 정지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그해 말 장년 출석 교인들이 1천여 명에 이르며 본격 성장세에 들어갔다.

지구촌교회는 199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교회를 확장 이전했다. 이 기간 장년 교인 출석은 1천 명에서 4천여 명으로 늘었다. 교회 측은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해 인접한 4층 빌딩 전체를 교육관으로 임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분당으로 옮긴 지 2년이 못 되어 주일 다섯 번의 예배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되자 지구촌교회는 다시 수지 신봉리 언덕의 신학교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또 한 번 이전했다고 한다. 1999년에 부설기관으로 목회리더십연구소를 발족했고, 2002년 1월에는 소그룹 시스템인 '목장교회를 본격 도입했다.



이동원 목사



진재혁 목사



최성은 목사

교회 측에 따르면 수지의 예배당이 다 시금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구촌교회는 2003년 4월, 분당 미금에 있는 쇼펄빌 건물에 또 하나의 성전을 마련하고 비전센터로 명명했다. 수지 신봉리 성전과 분당 비전센터에 광케이블을 통한 쌍방향 송수신으로 동시예배를 드리는 '두 날개 성전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교회 측은 설명했다.

2010년 4월에는 '위대한 명령, 위대한 동역'이라는 슬로건으로 '부활절 지구촌

목장 공동체 대축제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31,000여 명의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최했다고 한다.

지구촌교회를 개척해 17년간 사역해 온 이동원 목사는 2010년 65세로 조기 은퇴를 준비했고,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조직해 후임자를 모색했다. 이를 통해 진재혁 목사가 2010년 12월 26일 이 교회 제2대 담임으로 취임했다. 이동원 목사는 원로로 추대됐다.

그런데 2018년 9월 16일 주일예배 설

교에서 진 목사는 지구촌교회를 사임하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다소 갑작스런 사임 발표에 교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진 목사는 "힘들어서 떠나는 것 아니라, 더 힘든 곳으로, 비전을 이루고자 떠나자"고 했지만, 정년이 안 된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사임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던 터라 교회 안팎에서 그의 사임 배경을 두고 여러 설(說)이 제기됐었다.

제3대 담임인 최성은 목사는 이듬해인 2019년 지구촌교회로 부임했다. 최 목사는 침례신학대를 졸업하고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석사(M.Div)와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거쳐 2004년 10월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 미국 내 선교사로 다리농교회(Bridge Community Church)를 개척했다. 2011년

부터 지구촌교회로 부임하기 전까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부임 5년 만에 돌연 사임하게 됐다. 교회 측은 최 목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지구촌교회 담임목사직의 사임을 표명하셨다"며 "관련하여 다음 주에 있을 임시 사무총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 사무총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설교의 대가' '복음주의 4인방' 등의 수식어를 가진 이동원 목사와 함께 국내 대표적 대형교회로 성장해온 지구촌교회는 그러나 두 명의 후임 목사가 모두 중도 사임하면서 창립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교계 한 관계자는 "어느 교회나 성장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구촌교회가 과연 이번 위기를 넘어 제도 약할 수 있을지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봉사단, 수해지역 위한 구호활동 전개



한교봉이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구호활동을 펼쳤다. ©한교봉



한교봉 관계자들이 수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한교봉

경북 안동 찾아 복구작업 및 물품 지원

한국교회봉사단(이하 한교봉)이 최근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와 재난국장 오현진 목사에 따르면 한교봉은 지난 11일, 전체 150가구 중 수해를 입은 100여 가

구와 완전 수몰 13가구가 있는 경북 안동(위동)과 영양(입암)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고, 위동교회(담임 정영래 목사)에서 피해자를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지원했다.

15일에는 안동 위동교회의 2차 지원이 있었다. 장맛비는 잠시 소강상태지만 여전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고 한다. 수해를 입은 가정을 방문해 집기를 정리하고 청소

작업 등의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교봉은 "집 안팎으로 가득 찬 흙을 물로 씻고 못쓰게 된 장판과 벽지, 집기와 물품을 함께 정리하며 수재민의 뜨거운 눈물에 마음이 먹먹해졌다"고 밝혔다.

두 번에 걸친 안동지역 수해 복구 작업에는 한교봉 부분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대전시민교회 담임 김동국 목사와 부교역자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다. 위동교회는 수재민들을 위해 집안을 청소했고,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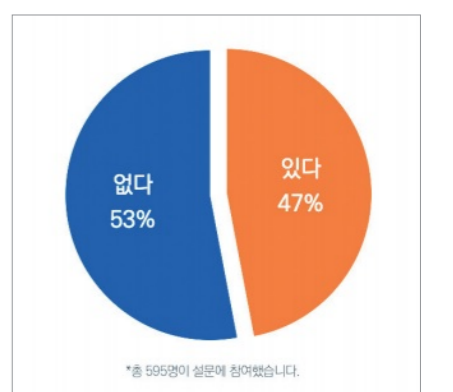
류 및 주방 세제 등 물품을 지원했다.

한교봉은 16-17일 충북 금산과 전북 완주 및 익산을 방문해 지원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 외의 지역도 교회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한교봉은 밝혔다.

한교봉은 지난 12일부터 임화원교회를 중심으로 모금활동과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교회 2곳 중 1곳 이상 "지난주 등록된 새신자 없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목사 595명 대상 설문



"목사님 교회는 지난주 주일에 새로 등록된 새신자가 있습니까?"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목사 595명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 결과, '있다'는 47%, '없다' 53%였다. 목데연은 "교회 2곳 중 1곳 이상이 새로 등록된 새신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목데연은 '한국교회 전도 실태'에 대한 최근 조사를 언급하며 "전도를 통해 교회 출석한 자의 수는 한 해 평균 6.7명(2022년)"이라며 "이는 2달에 1명 꼴로 새신자가 등록하는 셈인데, 어느 달은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탈종교화 시대에서 그만큼 전도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목사님 교회는 지난주 주일에 새로 등록된 새신자가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 비율 ©목회데이터연구소

"사람을 살리는 노래와 이야기" 전하자 >> 3면

"전세계 3만 4천 탈북민이 자유의 용사" >> 6면

일본 上高地 가미코치

이국적인 힐링 산책 4일
[출발 확정] 일요일 출발 7월 28일, 8월 4일, 18일

가미코치 7-8월 기준
평균 약 20°
최고: 약 23° 최저: 약 12°
시원하게 보내기 좋은 여름 휴가지

전문 인솔자가 함께하는 편안한 여행 **상품가 2,090,000원부터~**

- 8월 평균 최고 기온 23도, 도쿄보다 약 10도 낮고, 삿포로시보다도 낮은 시원한 여행!
- 대한항공 왕복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온천 호텔 3박(2인 1실) / 조식, 중식, 석식 제공
-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전용 차량, 가이드 경비 포함
- 하쿠산 화이트로드, 합장촌, 히다 대종유동, 가미코치, 노리쿠라 이지 트레일 등 관광
- 노리쿠라다케 자연 속 히라유 노천 온천, 시바야마 호수 전망 실외/내 온천 체험

몽골	대자연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힐링 여행 몽골·바이칼로 떠나는 심 여행 / 7일 4,490,000원
베트남	미리 준비하는 추석 연휴 차별화된 베트남 여행 하롱베이 럭셔리 크루즈 / 5일 2,490,000원
유럽	와인과 예술, 차별화된 일정과 감동의 향연 보르도와 남프랑스 낭만 여행 / 10일 8,990,000원
네팔·부탄	천상의 왕국을 찾아 떠나는 미지의 땅 자연에서의 힐링 네팔, 부탄 / 9일 6,990,000원

* 본 상품은 실시간 항공요금 기준으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 상황에 따라 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헬스조선 비타투어 여행문의 | 1544-1984 www.vitatour.co.kr

‘노화와 죽음, 생애 말기 돌봄과 연명치료’에 대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콜로키움 개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가 최근 서울 용산역 3층 회의실에서 ‘노화와 죽음, 생애 말기 돌봄과 연명치료’라는 주제로 7월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최화숙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전 한국호스피스협회 부회장)가 나섰다. 최 목사는 17년간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임종을 지켜주었다고 한다. 연구소는 “수많은 임종의 순간을 겪은 통찰력을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하고, 죽어 가는 이들을 위해 어떤 돌봄을 베풀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삶과 죽음에 대해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특히 죽음의 원인에 대해 자연사와 병사, 사고사가 있다고 했다. 이중 자연사에 대해 ‘건강하게

살다가 노화로 인해 사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최 목사는 품위를 지키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우려면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과 현재를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병사는 각종 질병들로 인해 어떠한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불가능하고,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로 예정되는 환자에게 해당하는 죽음이라고 했다. 이 때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시행될 수 있다고 최 목사는 말했다.

최 목사는 연명치료의 중단이 곧 안락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며, 말기에도 완화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목사에 따르면 완화의료의 △1단계



콜로키움 강사로 나선 최화숙 목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는 모든 보건의료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보건의료에 통합된 서비스다. △2단계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질환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질환치료와 통합된 일반적 완

화의료 서비스다. △3단계는 호스피스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완화의료 서비스다. 전체 완화의료 제공의 30~45%를 담당하며 이 서비스를 받는 이들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콜로키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90% 정도는 암질환자라고 한다. 최 목사는 끝으로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한입니다. 당신은 당신 생의 마지막에 있으므로 소중한입니다. 우리는 당신

이 평화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도움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라는 말을 소개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 국가관과 가치관, 제헌헌법에 반영돼”

살롬나비, 제76주년 제헌절 논평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2024년 제76주년 제헌절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대한민국의 법적 근간인

헌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온 세계에 선포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국경일의 꽃”이라며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정은 일제강점기의 일

본은 물론 모든 외세의 지배와 억압을 완전히 철폐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공화국임을 선포한 날이다. 국민 주권의 법치주의는 물론 정당제도와 삼권분립, 평등한 시민권과 시민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 체제 수호 의지를 공포한 날”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공화국의 법적 체계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제헌헌법의 주체는 ‘우리를 대한국민’이라며 “제헌헌법은 ‘우리를 대한국민이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며 그 주체임을 선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헌헌법은 헌법 주체 ‘우리들 대한국민’의 사회경제적 평등권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며 “제헌헌법은 기존 봉건주의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언급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의무 교육과 노동권 보장은 제헌헌법의 획기적 사건이었다”고 했다.

특히 “다수의 제헌 국회의원들의 기독교 국가관과 가치관이 제헌헌법에 반영

되었음을 명심하자”며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에는 이승만, 유진오, 조병옥, 정일형, 이윤영 등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그리고 제헌국회가 처음 개원할 때 임시 의장 이승만의 지명 요청으로 이윤영 의원이 개원 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로써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현재 22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략적인 포퓰리즘 무더기 입법시도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더 나아가 거대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하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 카드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기독교 공직자들은 헌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을 보장 받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헌법 정신을 숙지하고 법과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누구보다 실천해야 할 자들이 바로 기독교 정치인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우리는 간다.
기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누구보다 먼저 진심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곳 어디든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대한적십자사

선교의 목표가 사회적 억압에서의 해방?

‘제1회 로잔청년컨퍼런스’ 개최
문대원 목사, 로잔운동 소개

한국로잔YLGen(Younger Leaders Generation)과 선교한국이 13일 오후 서울 신길교회에서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라는 주제로 ‘제1회 로잔청년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아이자야씩스타일이 찬양을 인도했고, 한국로잔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가 강사로 나서 로잔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문 목사는 로잔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로잔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로잔운동이 어떤 이유로 태동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먼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언급했다. WCC를 중심으로 선교의 목표가 소위 ‘인간화’로 제시되면서 이것이 성경적 선교신학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 복음주의 진영이 로잔운동을 시작했다는 것

문 목사는 “인간화는 인간을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으로 선교의 목표를 축소시켰다”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는 인간을 사회적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그는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부자를 미워하게 하는 건



제1회 로잔청년컨퍼런스가 13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신학이 아닌 이데올로기”라고 했다. 문 목사는 “복음주의 진영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립해야만 했다. 이데올로기나 사회 이론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해 선교신학을 재정립해야 했다”며 “그래서 나온 것이 로잔언약이다. 이는 20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 인식된다”고 했다.

그는 “로잔언약은 세속화와 자유주의 신학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 전 세계 복음

주의자들이 모여 구원과 복음, 선교가 무엇인지 성경에 근거해 정립했다. 빌리 그래함 목사와 존 스톱트 목사가 주도했다”며 “로잔언약은 복음과 전도, 선교와 문화, 교회와 연합에 대해 탁월하게 정립했다”고 했다.

이어 “로잔운동은 세계선교를 위한 플랫폼이다. 로잔언약에 동의하는 누구나 자신의 다양한 통찰과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초목 맛이’ 삼계탕 복달임 행사 열려 15일 초목을 맞아 최근 광주 북구 양산동한 교회에서 열린 복달임 나눔 행사에서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광주 북구

“한국교회, ‘사람을 살리는 노래와 이야기’ 전하자”

윤영훈 박사,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서 강연

한국기독교교육학회(회장 장신근)가 최근 ‘K-컬처와 기독교교육’이라는 주제로 2024 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줌을 통해 개최했다.

먼저, 양성진 박사(감신대, 협동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박은혜 박사(성결대, 수석부회장)의 기도, 성경봉독, 이은성 박사(성결대 부총장)의 설교와 축도, 장신근 박사(장신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회장)의 환영인사, 주연수 박사(부산장신대, 총무)의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누가복음 3장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한 이은성 박사는 “교회는 복음의 내용으로 세상에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공동체여야 하며, 복음의 내용이 드러나 세상에 구속의 은혜와 공동선을 제시하는 복음적 공동체여야 한다”며 “이 시대에 한국기독교교육학회가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역할을 다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주제 강연에선 양승준 박사(세종대)를 좌장으로, 윤영훈 박사(성결대)가 ‘K콘텐츠와 기독교교육: KPOP을 중심으로’ 주제강연, 전병철 박사(아산대)가 논찬했다.

◆K콘텐츠의 성공 요인

윤영훈 박사는 “한국 대중문화는 경제 못지않게 압축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변방 약소국 한국인들의 위대한 성취이며, 종건 나쁜건 우리는 가장 역동적인 대중문화 공화국에 살고 있다”며 “왜 세계인들은 K콘텐츠에 열광하는가”라고 했다.

윤 박사는 “K콘텐츠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은 우수함에 있다. K콘텐츠의 힘은 독창적이거나 전통적이거나 혼성화 또는 융합 능력에서 기인한다”며 “한류는 한국적인 콘텐츠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며, 수용자의 취향에 맞게 글로벌하고 동시에 지역적 요소를 배합하고 뒤섞은 이종교배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요인은 IT기술력과 디지털 세계화 환경이다. 2010년 이후 한류는 SNS가 준 선물이다. 팬데믹 사태는 K콘텐츠의 폭넓은 세계화의 큰 계기가 되었다”며 “전 국민이 디지털로 연결된 환경 없이 K방역이 가능했을까? 한국 아이들은 팬들에게 직접 트윗하고 브이로그를 통해 팬들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IT기술을 활용한다. KPOP 성공은 해외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팬덤’이라는 끈끈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세 번째 요인은 산업화 이후 지속된 한국인들이 흘린 파·땀·눈물의 결정체”라며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한 한국인들의 치열한 삶의 DNA는 문화 산업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풍부한 인적자원의 힘은 다른 의미로 가장 싼 가격에 고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에서 그 가성비비의 중

심은 사람이다. ‘오징어게임’의 성공 이면에 한국의 빠른 제작과 저렴한 제작비가 화제가 된 것이 이 모순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삶의 가능성과 가치를 진술하게..”

그는 “한류로 한국교회 역시 새로운 선교적 기회에 대한 설렘이 있다. 너도 나도 한국 기독교의 세계적 확장을 기대했다. 한류는 한국교회의 선교 과업에 엄청난 기회”라며 “로마시대 도로처럼 최상의 미디어 기술력을 지닌 한국 선교사들은 그 기술이 높아준 도로를 타고 어디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지인이 언어와 문화를 배우지 않고도 선교지에서 활동이 용이하다.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 한국문화에 열광하는 사람들, 한국 음식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곳곳에 넘쳐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오늘날 이런 가능성에 대한 교회의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한류의 움직임이 거의 없던 시절, 한국의 문화적 세계화에 교회는 선도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량은 축소되어 있다”며 “기회를 살리려는 커녕 많은 교회와 기독교 대학과 기관들과 선교단체들의 최선의 과제가 생존이다.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점차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했다.

윤 박사는 “한류의 중요한 원동력은 90년대 이후 형성된 문화시장의 내수 활성화에 있다. 한국 문화계는 미국 팝과 할리우드를 동경하던 것을 넘어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한국 음악과 영화는 신자유주의 위기에서도 내수에서 미국 문화를 압도해갔다. 이런 경쟁력은 21세기 세계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시기에 급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대중문화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콘텐츠를 강화하는데 비해, 한국교회는 신학·문화적으로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다”고 했다.

이어 “엄청난 속도감의 K콘텐츠에 비해 한국교회 문화적응력과 변화는 다른 세계를 사는 것처럼 느리다.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19세기 만든 과목을 20세기 신생들이 21세기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며 “월리엄 캐리가 주장했듯이 부흥운동 없이 선교운동도 없다. 한국교회는 그 존재 기반이 되는 영적 활성화가 식어버렸고, 새 시대에 맞는 콘텐츠도 개발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K콘텐츠가 지향하는 가치가 기독교 복음의 근본정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문화 상황은 복음의 효율적 소통에 중요한 환경이다. 무조건 트렌드를 좇을 필요는 없다. 탈세속화 시대 종교는 문화적 트렌드의 질주 속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역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 기념 사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또한 “90년대 ‘열린 예배와 같은 문화적 시도’가 답이 될 수는 없다. 대중문화 공화국에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문화적 세련됨이 번덕스런 대중의 입맛을 따라가며 맞추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는 치열한 한국 사회와 정신없이 쏟아지는 문화 홍수 이면에 교회는 다른 삶의 가능성과 가치를 진술하게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솔직한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했다.

더불어 “K콘텐츠 열풍은 절대 일회성이 아니다. 계속 KPOP 히트 곡들과 또 다른 오징어게임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바쁘고 치열할 것”이라며 “문화적 질주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와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콘텐츠가 다시 세계화되길 바란다. 창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콘텐츠를 교회 울타리를 넘어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POP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독교 교육 방법론

윤 박사는 “KPOP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독교 교육 방법론으로 첫 번째는 스타 파워와 매력적인 기독교 인재 육성”이라며 “문화에서 한 명의 스타가 창출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 기독교 부흥에 동반된 위대한 전도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어느 순간 사라졌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스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매력”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콘텐츠와 ‘리메’를 넘어선 세대 간의 소통이다. 기독교 교육 방법은 열정을 자극하는 독려가 아닌 격려이다. 이는 결과물에 대한 생생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라며 “아이들은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칭고에 지쳐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자기확신도 약하다. 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인간의 문화 사명이다. 추상적·관습적 칭찬이 아니라 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의미 부여에서 청년들은 큰 효능감과 자존감을 느낀다. 그것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움”이라고 했다.

또한 “세 번째로 송캠프, 협업이 중요하다. 기독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공통의 목표와 관심을 위해, 각자의 재능을 연합한 협업 콘텐츠 메이킹이 요청된다”며 “취향을 반영한 소그룹 클럽과 공동교제를 통한 활동은 소속감과 모방을 통한 창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작은 성과들이 이들에게 효능감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팬덤 구축과 관리(SNS 소통)”라며 “기독교 교육에서 요청되는 SNS 쌍방향 소통의 힘, 그것은 기독교라는 거대한 지저스 팬덤이다. 복음의 덕면에 교회는 다른 삶의 가능성과 가치를 진술하게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솔직한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했다.

더불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프트웨어 리스천 콘텐츠이다. 소프트웨어 콘텐츠에 매료되는 이유는 ‘찰라의 매력과 공감’이다. 즉 쉽게 공유되고 재생산되는 콘텐츠의 매력”이라며 “교회의 가르침은 너무 설명적이며 장황하고 진지하다. 교리도덕적 교훈을 강조하다 보니 형식주의가 지배적



윤영훈 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이다. 오늘날의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콘텐츠에는 간결하고, 재미와 재치가 있으며,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함이 요청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 예수님은 위대한 예술가였다. 예수님처럼 매력적이고 누군가가 모방하게 만드는 기독교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후엔 분과발표가 진행됐다. 분과발표에는 ▲안정도 박사(장신대 기독교교육)·사제덕 박사(호남신대, 구약학)가 ‘K-Pop에 나타난 광야 이미지 광야신학과 자기조율의 관점에서’ ▲박항숙 박사(서울신학대)가 ‘교회 교사교육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장윤석 박사(연세대)가 ‘관계 중심 기독교 청소년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고수진 박사(영남신대, 세계사

이비대학)가 ‘K-Culture시대, 성인의 기독교인 정체감을 재형성하는 교리교육’ ▲김재현 박사(계명대)가 ‘기독교적 죽음 교육 방안 제시’ ▲이성아 박사(한국성서대)가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최신 경향 연구 분석’ ▲남선우 박사(열린교회)가 ‘프로젝트 기반 생성형 AI 활용 교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수련회를 중심으로’ ▲강영택 박사(우석대)가 ‘규모 감각연과 명동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날 특별히 온라인 개최의 장점을 살려 국외 학자의 학술발표(학술교육분과)도 진행됐다. ▲다이안(루벤) 박사가 ‘Context and Challenges of the Belgian RE Course’ 주제로 발표했고, 순문 박사(연세대)가 통역했다. 장요한 기자

제주 쿼어 축제 반대 현수막 훼손 혐의로 20대 여성 검거



제5회 제주 쿼어프라이드가 열리는 제주 서귀포시 송산동 자구리공원 일대에서 행사 반대 현수막이 훼손돼 있다. ©뉴스시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제주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일대에서 쿼어 축제 반대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퀴어프라이드’ 행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여러 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 단체 등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2024 제주퀴어프라이드 집행위원회는 13일 오후 1시 서귀포시 자구리문화예술공원에서 제5회 ‘제주퀴어프라이드’ 행사를 개최했다. 같은 날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를 중심으로 제주 시민 300여명은 쿼어 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자구리공원 근처에서 열었다. 노형구 기자

나의 내일에 확신이 생겼다
삼성생명FC

잘할 수 있을까?
삼성생명을 만났을 때,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믿음직한 동료들
힘이 되는 든든한 지원
모두 다 함께 성장하니까

프리미엄 고객사랑 서비스
고객 방문용을 지원합니다

코칭 매니저(CM)
전담 CM이 성공적인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사랑On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1599-0100 (24시간 상담) | 2024.05.13 ~ 2025.05.31
본 광고물은 임직원 배역이 아닌 컨설팅 모습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 3명 중 1명 “AI 설교, 인간 대체할 수도”

미국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약 3명 중 1명(32%)은 인공지능(AI) 설교 작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인간보다 더 뛰어나거나 동등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 결과는 델러스 소재의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Barna Group)’과 신앙과 접목된 기술 플랫폼인 ‘글루(Gloo)’에 의해 지난 9일 공개됐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설문 조사는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성인 기독교인 656명과 성인

비기독교인 1072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온라인 패널을 사용하고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했다.

글루의 인공지능 책임자 스티브 빌링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 가치에 맞춰 AI를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 탐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성인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인 손길이 필요한 사역 업무는 인간이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상

적인 행정 업무를 넘어 AI 사용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사역 지도자들에게 놀라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특정 업무를 기독교인과 인공지능 중 누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기독교인들이 받은 질문은 “AI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업은 무엇이며, 어떤 작업을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영적 상담(86%)과 정신 건강 상담(84%)에서 인간을 AI보다 더 선호했다. 그러나 AI는 계획 및



ChatGPT. ©Unsplash/Rolf van Root

일정 관리 등 행정 업무에서 인간보다 더 높은 지지(67%)를 얻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은 AI가 음

악 선택표를 구성하는 작업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독교인의 절반(50%)은 교회 예산에 관한 조언 능력에서 AI가 더 뛰어나거나 동등하다고 답했다.

한편, 성인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거의 절반(44%)이 AI가 생성한 문학 작품을 지지했으며, 젊은 세대(61%)는 AI가 예술, 음악, 스토리텔링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나 그룹의 수석 연구원 애슐리 에크메이는 “이 연구는 사람들이 윤리적 고려 사항에서부터 더 높은 AI 사용 역량을 원

하는 열망까지, 기술 참여 방법에서 집진적이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AI의 영향력에 대해 점점 더 고민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

글루는 AI가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IT 전문가들을 위한 제2회 연례 행사 ‘AI와 교회 해커톤(AI & the Church Hackathon)’을 준비 중이다. 이 행사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플로리다주 볼더에서 열리며, 팻 겔싱어 인텔 CEO와 바비 그루엔왈드 유버전 CEO 등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美복음주의 신자, 팬데믹 이전보다 교회 출석 증가

최근 연구에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자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설문 조사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기관인 인피니티컨셉츠(Infinity Concepts)의 의뢰로 연구 컨설팅 회사 그레이매터리서치(Grey Matter Research)가 수행했으며, 교회 예배에 가끔이라도 출석하는 819명의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약 15%의 복음주의자들이 교회의 대면 예배에 출석하기 전 디지털 방식으로 새로운 교회를 확인하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의 5%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35세 미만의 복음주의자들 중 대부분(78%)이 예배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현재 다니는 교회를 찾았다. 반면, 젊은 성인의 단 4%만이



기도하는 미국 성도들의 모습. ©Luis Quintero/ Pixels.com

온라인 디지털 예배를 통해 현재 교회를 처음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레이매터리서치의 사장 론 샬러스는 “교회 출석에 덜 열심이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동안 교회를 완전히 그만두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이전에는 온라인 시청에 대한 추경이 거의 없었지만, 대면 예배와 디지털 예배를 함께 고려하면, 교회를 계

속 출석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실제로 팬데믹 이전보다 더 자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개인적인 초청은 여전히 처음 방문자들이 교회에 오는 주요 경로이다. 가족이나 친구의 초대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비율은 팬데믹 이전에는 59%, 보건 위기 이후에는 57%로 거의 비슷하다.

이는 연령대별로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젊은 복음주의자들 중 약 71%가 개인 초청을 통해 현재 다니는 교회에 갔으며, 55세 이상 복음주의자들의 51%가 개인 초청을 통해 교회를 찾았다. 이 수치는 35~44세 연령대는 62%, 45~54세 연령대는 59%를 기록했다.

현재는 약 54%의 복음주의자들이 매주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65%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한다. 또한 39%는 매주 디지털 예배를 시청하고 있으며, 15%는 한 달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디지털 예배를 시청한다.

인피니티컨셉츠의 사장 겸 CEO인 마크 드레이스타트는 “이번 연구 조사는 미국 교회의 변화와 동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며 “디지털 우선 참여는 팬데믹 이전보다 세 배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4명 중 3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예배를 직접 참석하여 교회를 찾는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한남글로벌선교인재장학회, 한남대에 장학금 전달



한남글로벌 선교 인재 장학금 전달식 기념 사진. ©한남대

한남글로벌선교인재프로젝트 및 지역교회, 1,700만원 전달

한남대학교(총장 이승철)의 글로벌 선교 인재 양성을 위한 ‘한남글로벌선교인재장학회’가 한남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남글로벌선교인재프로젝트 운영위원장 권석은 목사(용전교회) 및 지역교회 목사들은 12일 오전 11시 30분 한남대 총장에게 1,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으로 2022년 처음 시작된 장학회의 누적 기금은 1억6,170만원에 이른다.

한남글로벌선교인재프로젝트는 한남대를 설립한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의 장학 정신을 계승하고, 글로벌 선교 인재 양성을 위해 과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교회가 과송한 선교사들이 추천하는 해외 인재를 한남대 기독교학과에서 교육하여 미래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로 양성하고, 지역 교회들이 유학생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신앙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해외 선교지, 대학, 지역교회가

협력하여 현직인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새로운 선교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권석은 목사는 “한남대를 설립할 당시 미국 남 장로교 선교사 7명이 미국 현지 교회를 통해 모금 활동을 벌여 한국 선교를 이어간 것처럼, 남 장로교 선교사들의 방식을 본받아 해외 선교사를 과송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이승철 총장은 “한남대를 설립한 선교사님들의 창학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뜻을 소중히 여겨 대학에서 훌륭한 선교 인재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프로젝트에는 용전교회(권석은 목사), 대덕한빛교회(김은섭 목사), 오정교회(홍순영 목사), 유성장로교회(류기열 목사), 청북교회(박재필 목사), 대전영락교회(김상수 목사), 서원경교회(황순환 목사), 공주원로교회(임영희 목사), 청주성서신학원(김성수 목사)이 참여했다.

장요한 기자



몽골 교육봉사와 단기선교 활동에 나선 안양대 신학대학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대

안양대 신학대학 학생들, 몽골에서 교육봉사 및 단기선교 활동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학생들이 몽골에서 교육봉사 및 단기선교 활동을 한다. 대학 신학대학 재학생 18명은 11일부터 19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가조르트시, 탈라흐에서 교육봉사 활동과 단기선교 및 문화 탐방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몽골 청소년 여름학교를 통해 교육봉사 활동 및 캠프를 지원하고, 울란바토르국립박물관과 테릴지국립공

원 등을 둘러보며 몽골의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는 등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탐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안양대 신학대학 이정관 학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크루즈여행 가상 체험’ 이벤트!

동반자까지 총 20명에게 프린세스 선사 초청 썬 크루즈 ‘선상 투어 및 정찬’ 기회를 드립니다!

QR로 응모하세요!

프린세스크루즈 공식 소셜 채널 및 웹사이트에서 상세 내용 [이벤트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2024년 8월 12일까지!
 선박투어 및 정찬 날짜: 2024년 8월 31일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정찬 장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여행 문의 및 상담: Tel. 02)318-1918
 프린세스 크루즈 한국 지사 www.princesscruises.co.kr

그린닥터스재단, 12년 만에 삼거마을서 의료봉사 활동 펼쳐

고령 주민들의 건강 챙기고 농촌 일손 돕기까지... 온병원그룹과 함께한 여름 봉사활동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과 온병원그룹이 최근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삼거마을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지난 2012년에 이어 12년만의 재방문이다.

이번 의료 봉사는 썸씨 30대에 이르는 삼복 무더위 속에서 의료봉사가 진행됐다. 이번 봉사에는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 윤성훈 진료원장, 이명기 부원장, 조정미 재활의학과 과장, 한의사 최철호 원장 등 5명의 의사와 온종합병원 간호부 수간호사 20명, 물리치료사 3명 등 온종합병원과 그린닥터스 회원 80명이 참여했다.

114년 역사를 자랑하는 삼거교회에 마련된 임시진료실에는 대부분 팔손을 낀 고령 주민들이 찾아왔다. 주민들은 주로 무릎, 허리, 어깨 통증과 눈 질환을 호소했으며, 대개 혈압도 정상치보다 높았다.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팔손 할머니는 고급 영양제 수액을 맞고 그린닥터스 봉사단에 감사 표시했다.

삼거마을을 12년 만에 다시 방문한 한 주민은 그린닥터스 봉사단의 방문에 반가움을 표하며, 마을이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마을청년회회장의 나이가 예순여덟 살이라는 말은 지방소멸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은 "시골에서는 안과 의사를 만나기 쉽지 않아, 매년 농어촌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가면 안과 진료소로 주민들이 많이 몰려온다"며 "단 하루 개설되는 임시 진료소이다 보니, 외래진료를 마치고는 반드시 백내장과 녹내장이나 안구건조증 등에 대한 간단한 관리요령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명의

집을 방문해 왕진봉사도 실시했다. 한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았으나 정신 건강은 양호했다. 또 다른 90세 부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투석과 필담으로 의료진과 소통했다.

이날 그린닥터스 봉사단은 땀 흘리며 진료 봉사하는 온병원그룹 의료진과 진료실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현장서 직접 만든 미숫가루 음료와 시원한 수박을 제공했다.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의료봉사에 동참한 그린닥터스 학부모회원들은 진료실이 설치된 교회 식당에서 국수를 삶아 삼거마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했다.

삼거교회 담임 박래환 목사는 "삼거마을 주민 대부분 고령층이어서 아픈 데를 달고 살지만, 워낙 산골이어서 의료기반 이용이 쉽지 않은데 의료봉사단체가 와서 왕진봉사까지 해주니 너무 고맙다"며 "사실 어르신 상당수가 독거노인이어서 도시 봉사단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린닥터스재단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삼거마을 의료 봉사 기념 사진. ©그린닥터스재단



임시진료실이 114년 역사를 자랑하는 삼거교회에서 마련됐다. ©그린닥터스재단



의료봉사 현장의 모습. ©그린닥터스재단



그린닥터스 봉사단이 의료봉사 이후 농촌일손 돕기를 했다. ©그린닥터스재단

한편, 그린닥터스 봉사단은 삼거마을 봉사를 마치고 복숭아 수확기를 맞아 일

손이 부족한 과수원을 찾아 농촌일손 돕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삼랑진읍 우곡리

만어농장에서는 봉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요한 기자

“꺼져가는 생명 되살리는 소중한 불씨 되어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감사”

지난달 전국 8개 교회 628명 성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가 지난 6월, 전국 8개 교회에서 628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6월 2일,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소재한 은평교회(담임 박지현 목사)는 총 3부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1996



은평교회 박지현 담임목사(왼쪽)에게 생명나눔기념패를 전달하는 본부 박영수 목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박지현 담임목사는 “제상을 떠나면 육신은 먼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영과 육으로 회복된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 없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함께하자”고 권면했다. 이에 416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해 현재까지 총 626명의 성도가 장기부전 환자를 섬기는 생명나눔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 6월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담임 이성훈 목사)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20여 년 전 신부전 환자인 동생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한 이성훈 목사는 “올해 교

회 슬로건이 ‘살리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이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자”고 권면했다.

이에 생명나눔 사역의 가치와 의미에 공감한 성도 98명이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고, 2011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린 하늘비전교회는 총 267명의 성도가 생명나눔 운동에 마음을 더하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본부는 전했다.

이외에도 감제복지교회(담임 정길영 목사), 높은뜻위례교회(담임 문형규 목사), 새장조교회(담임 정인찬 목사), 성암교회(담임 박석찬 목사), 예수소망교회(담임 최대성 목사), 토산교회(담임 박은환 목사)가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소중한 불씨가 되어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용기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

지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생명나눔 사역에 더 많이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주)지에스엘뷰티, 지미션 통해 소외 계층 위한 화장품 기부

사단법인 지미션 인터내셔널대표 박충관(주)지에스엘뷰티대표 김이슬가 소외된 이웃 및 취약계층을 위한 약 2천6백만 원 상당의 온이트 화장품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부 물품은 예민한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저자극 화장품으로, 고농축 시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진정과 항염 작용에 효과적인 제품이며 토너, 크림 등 총 1,024개의 후원 물품이 지미션 협력기관을 통해 저소득층, 무연고 환우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었다.

(주)지에스엘뷰티 김이슬 대표는 “물품 기부를 통해 꾸준히 후원할 수 있어 감사하다. 기초 화장품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

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계속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미션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지에스엘뷰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소득층, 무연고자, 피부질환이 있으나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성 환우 등 여성 정신과 병동, 노인 요양 병동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에스엘뷰티에서 보여주는 선한 마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에스엘뷰티와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나눔을 전하고 싶



전북 김제 신세계병원에서 화장품을 수령 후 기념촬영을 했다. ©신세계효병원

다”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지미션은 교회와 선교사,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취약계층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물품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인터콥 선교회 내부 갈등 심화... 부동산 사유화 의혹과 선교사 이탈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배후 예수살림 운동으로 인해 이단성 지적을 받아 온 인터콥 선교회가 최근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선교사 수백 명이 이미 이탈했거나 탈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최바울(본명 최한우) 본부장의 부동산 사유화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최바울 본부장이 인터콥 재정으로 경북 상주시 인근 농공단지에서 수천 제곱미터의 부지를 개인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부동산의 총 구매 가격은 약 13억 원에 달한다. CBS 이슈포커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터콥 선교사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으며, 2019년 12억 원에 매입한 공덕동 상가 건물도 2021년 1월 최 본부장의 딸에게 2억 5천만 원에 매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매도가 이루어진 2021년 1월은 상주 인터콥 열방센터에서 8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인터콥 선교사들은 국내외 부동산 현황과 본부장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인터콥의 자산을 본부장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최본부

장이 거주하는 상주 미션 하우스의 소유 여부 또한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바울 본부장은 이를 일종의 ‘무대타로 여겼고, 온라인 선교사 회의에서도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 항변했다. 이에 실망한 약 백여 가정의 선교사들은 가족과 함께 사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콥은 최바울의 재산 사유화 논란으로 내분이 깊어지면서, 일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대개의 (극단적) 종말론적 단체가 밟고 있는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한 기자

MMF 자금 운용 7년 연속 수탁고 업계 1위

머니마켓 ETF도 역시,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초단기채 ETF

하나 1Q 원큐 머니마켓액티브

종목코드 : 479080

MMF 수탁고 업계 1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말기준 MMF 수탁고 1위 (금융투자협회)

국내 최상위권 MMF 운용사
수탁고 기준, 18조원 규모 MMF 운용
(금융투자협회, 23년 12월 말 기준)

QR코드로
신용 상태인내를 확인하세요

* 이 금융투자상품은 해당자산의 위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자산의 성격, 변동성, 유동성, 환율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해산이유가 발생하면 투자자산은 본부-수탁회 및 판매업자와 함께 해당 집합투자증권 및 관련투자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 배분, 또는 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으며, 장외 거래는 (간이)투자자명단에 포함된다. * 당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운영에 중립적 입장이 아니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이 1Q와 관련하여 본 증권상장사(주)에 대한 투자상담금: 5천원(당연연, 총보수: 연 0.050%, (이정평가: 0.007%, 집행투자: 0.039%, 수익배분: 0.005%, 사외관리보수: 0.005%) 증권거래세, 기타비용이 추가 발생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4-022179(2024.06.10 ~ 2025.06.09)

“전세계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이 자유의 용사”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미주 탈북민대회 열려

“저는 전세계의 3만 4천여명의 탈북민이 자유의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세계 각지에 정착해서 비즈니스맨으로, 정치인으로, 교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곧 열릴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어서 북한 땅에 변화가 오고 있다”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미주 탈북민대회가 7월 12일 오후 3시에 가든스위트호텔에서 AKUS 한미연합회, 오렌지카운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 AKUS 한미연합회 LA의 남북통일분과위원장, NKIA 탈북민선교회, 미주북한인권 통일연대가 주관해 열렸다.

이날 강연을 한 탈북민 티모시 조는 앞서 워싱턴 D시에서 있었던 제2차 북한자유주간에서 알리던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보았던 문구 ‘프리덤 이즈 낫 프리(Freedom is not free)’가 매우 감명이 깊었다면서, 영국 맨체스터까지 와서 자유를 선물로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티모시 조는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시의원예 도전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오늘도 북한의 2천만명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오늘 이 행

사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자리에 서서 영광스럽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제가 어려울 때 부모님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저는 반역자의 아들로 딱지가 붙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자유의 땅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것은 ‘팬이었다. 취미중의 하나가 팬을 수집하는 것인데, 팬과 책들을 모아서 북한에 보내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서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북한에서 세뇌교육을 받고 있다. 그들을 위해 팬과 책을 보내주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탈북 후 영국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제 스스로 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탈북이 가능했나’라는 것이었다. 탈북할 때 17세였고 북송 후 여러번의 끔찍한 수용소 생활이 있었다”라면서 “한 번은 중국에서 18명과 함께 북송을 당했는데 감방에 탈북민이 가득차서 누울 곳이 없어서 서로 등을 지고 자게 되었다. 아침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제 뒤에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이 미 고문을 받은 상태였고, 사체가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비자에 오줌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미주 탈북민대회가 7월 12일 오후 3시에 가든스위트호텔에서 AKUS 한미연합회, 오렌지카운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로 열렸다. 주최 측은 강연자 티모시 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토마스 맹 기자



행사가 열린 현장의 모습. ©토마스 맹 기자



탈북민 티모시 조 ©토마스 맹 기자

저렸다. 함께 잤던 17명 중에 나만 살아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탈북 후에 중국의 외국인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두번째 북송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감방 안에 7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의 죄수도

있었다. 마치 견달같은 그가 나에게 작은 성경책을 주고 나서 읽어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보라고 권유하는 것이었다”라면서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죽을 앞 마지막 선택은 기도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내가 자살을 할까봐

솔을 주지 않아 손으로 양치를 하던 상황이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아멘을 하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북한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영화같이 개인 같은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풀려나게 되었는데, 미국 학교에서 붙잡혔을 때 이를 보고 많은 외국인들이 울고 있었다. 그중에 10세 아이와 일부가 가져다준 나를 살려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영국 BBC와 미국 CNN 등 세계 유명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이 세계의 중국 대사관에 시위를 하는 효과로 이어져서 내가 필리핀으로 추방당하고 풀려나는 놀라운 일들로 이어졌다”고 했다.

티모시 조는 “16년 동안 자유의 땅 영국에서 사는 동안 힘들었던 것은 북한에서 보았던 각종 인권 유린이 꿈에서 보이는 등 여러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것이었다. 아직도 많은 탈북민들이 조국 땅에 잡혀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면서 “저는 전세계의 3만 4천여명의 탈

북민이 자유의 용사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곧 열릴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이 북한의 2천 5백만명 대표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북에 남겨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그들의 호소는 오늘날 미국의 인권 대사사와 유엔의 인권 대사를 데려왔다. 우리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의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 통일의 하나의 민족의날로 제정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개회사를 한 김영길 장로(AKUS 한미연합회 총회장)는 “북한이 닫힌 마음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억압해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은 막을 수 없다. 이 증거가 북한이탈주민들이다”라면서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을 포용하고 권의 향상에 힘쓰므로 한국과 북한의 통합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행사에는 알래스카, 유타, 텍사스, 워싱턴 주의 시애틀과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40여 명의 탈북민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탈북민 자녀 장학위원회(이사장 조선환)가 탈북 자녀들에게 준비한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이상명 총장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출판기념회

프레스티지대학교(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가 최근 번역 출판된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출판 기념회가 지난 28일 오후 3시, 프레스티지대학교 멀티룸에서 열렸다.



이상명 총장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주최측 제공

이상명 박사의 2010년 논문인 “The Cosmic of Salvation, the Law, and Christ in Paul’s Undisputed Writings: From Anthropological and Cosmological Perspectives”가 독일 튀빙겐의 신학 전문 출판사인 모어 지백(Mohr Siebeck)에서 출간된 이후 14년 만에 출판된 번역서로, 이번 출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본 행사는 대면과 줌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본 대학 강정자 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저자 소개, 작가의 인사말, 기도 김은철 교수, 서평 정성호 교수

(렌버신학대학교 조직신학교수), 장동수 원로 목사,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대 표이사, 작가와의 대화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명 총장은 출판기념회의 소감으로 “이 책은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13개의 서신을 4막(1막-무율법 시대, 2막-율법 시대, 3막-교회 시대, 4막-그리스도 시대)의 드라마로 풀어낸 본서가 바울 연구에 기여하고, 바울 학회의 참여인 이수인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 정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서는 바울의 신학 세계를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서적으로서 바울 신학을 드라마로 재구성한 첫 학문적 시도이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레코-로만의 피아데이(아교육 또는 훈련 과정) 개념으로 설명한 첫 번째 학술 서적이다.

한편 이상명 박사의 저서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구입은 Artesia에 위치한 복음사(562-865-4949)에서 가능하다. 김민선 기자

“본문의 핵심을 포인트로 드라마틱한 설교하는 방법”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 대상 ‘원포인트 설교 세미나’ 열린다

오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오전 9:30 부터 오후 4:50까지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신성욱 교수(아신대 설교학) 초청 원포인트 강해설교 세미나가 열린다.



원포인트 설교의 방식을 배제하고 하나의 큰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해나가는 설교를 말한다. 성경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포인트 설교작성의 방법들을 통해 새로운 설교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기대하며 남가주 지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한다”고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참석자들에게는 강의안 및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등록은 무료이며, QR코드로 등록할 수 있다.

‘원포인트 드라마틱한 강해설교’를 개발한 신성욱 교수는 계명대, 총신대 신대원, 트리니티 신학교(Th.M 구약학 수료), 칼빈 신학교(Th.M 신학), 남아공의 프레토리아 대학University of Pretoria (Ph.D 설교학)에서 수학했으며현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설교의 삼중주』(킹덤북스, 2020), 『바 이블 토크스』(두란노, 2022)를 비롯해 다수의 저서가 있다. 주디 한 기자

이반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기록일보와 월드미션은, “1970년부터 ‘3대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포인트’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며, “원포인트의 설교는 세 개의 대지로 이루어지는 단조롭고 천

탈퇴공고

하나교회는

2024년 7월 14일(주일)

공동의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총회장 정학채목사), 남서울노회(노회장 김기성목사)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나교회

담임목사 양병금목사 외 교인 일동

기록교 유일의 24면 일간지!!

기록일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나요!

https://pf.kakao.com/_QNvAK/friend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록일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행되는 일간지로서, 기록교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문입니다.



성실기독교공사



개척교회 염가 공사 / 파이프 탐, 종각 총탐, 대형 십자가 시공, LED 네온 설치 네온 수리, 완공 후 철저한 A/S 보강



☎(02)923-2466 / HP : 010-5344-2466 / 080-938-0404 <부천시지사> (032)349-2466 / FAX : (02)923-2466 홈페이지 http://ss04.barunweb.co.kr

캐스빌상사 / tower2466@naver.com

대표 : 박진홍 (성실교회 안수집사)

“각국 내전 종식과 이주민 지원, 여성 교육 등 위해 기도 요청”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선교 기도 제목

◇베트남 기독교인, 자신의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 높게 생각해

베트남의 성인 2,255명을 대상으로 한 퓨리서치(Pew Research)의 설문 결과, 베트남 기독교인들은 타종교인들에 비해 종교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조사에서 베트남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5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베트남 기독교인의 경우 종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불교도들의 응답(72%)보다 15%나 높은 수치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48%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고, 불교 38%, 기독교 10%, 기타 종교 3%로 나타났다. 이를 나이별로 구분해 보면, 18-34세의 경우는 무종교가 52%, 불교 35%, 기독교 10%, 기타 3%로 나타났다. 35세 이상의 경우는 무종교가 46%, 불교 40%, 기독교 10%, 기타 4%로 나타났다. 이렇게 베트남인들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어릴 적 배경이었던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종교를 떠난 경우도 17%로 나타났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개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각각 77%, 83%)이었지만, 베트남에서는 부정적 견해가 4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베트남인들이 종교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인식의 변화를 주목하여 각 선교단체들이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세우고, 베트남 현지 교회들도 앞으로 더욱 지역 내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pewresearch.org)

◇미얀마 군부, 난민 캠프의 로힝야족까지 징집하고 있어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연합군들에게 주도권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있는 로힝야족까지 징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ISS)는 미얀마 라카인(Rakhine)주에서 최대 5천 명의 로힝야족이 징집된 것으로 보인다는 방글라데시 폭스바자르(Cox's Bazar) 외곽의 난민촌에서도 이들이 납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난민촌에서 납치되어 미얀마 군대에 편입된 남성들은 2주간의 훈련을 받은 뒤 미얀마 북부 일대에서 인지를 군고하고 있는 아라칸군(AA)과의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 ©Hanna Yu, 국경없는의사회

투에 투입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갈취와 마약 밀수로 로힝야 난민촌 일대에서 이권을 가지게 된 로힝야연대조직(RSO)을 회유해서 이들을 강제로 납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로힝야족 시민운동가인 르윈(Nay San Lwin)은 이들이 식량에 대한 거짓 약속에 속아 유인되거나 강단의 살해 위협을 받고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전투에 투입된 로힝야족 중 최소 6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군부는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과 아라칸군대 사이에 다툼과 분쟁을 조장하면서 서로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미얀마 내 전투와 군사적 긴장 상태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로힝야족을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economist.com)

◇동아시아 홍콩, 한국, 대만, 일본에서 종교 전환 비율 높게 나타나

퓨리서치(Pew Research)에서 6월에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홍콩,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유럽이나 다른 대륙과 비교해 종교 전환(religious switching)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하면서 종교를 바꾸거나 종교를 떠나거나 종교를 갖게 되는 종교 전환의 경향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홍콩인 53%, 한국인 53%, 대만인 42%, 일본인 3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35%로 가장 높고, 미국은 28%, 남미에서는 우루과이가 23%로 가장 높은 편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4개국에서 현재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수치는 절반에 가까웠다. 홍콩이 61%로 가장 높았고, 한국 52%, 일본 42%, 대만 27%로 조사되었다. 어릴 때는 종교적 배경에서 자랐지만 현재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홍콩이 37%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한국(35%), 대만(22%), 일본(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지만 무종교로 바뀌었다는 비율은 한국과 홍콩과 대만에서 각각 17%, 15%, 11%로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홍콩 11%, 일본 6%, 한국 16%, 대만 11%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나 신을 믿는다는 응답은 홍콩 77%, 일본 64%, 한국 60%, 대만 90%로 조사됐다. 종교 전환 비율이 높은 동아시아 국



로힝야 난민 캠프,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연합군들에게 주도권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있는 로힝야족까지 징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난민촌에서 납치되어 미얀마 군대에 편입된 남성들은 2주간의 훈련을 받은 뒤 미얀마 북부 일대에서 인지를 군고하고 있는 아라칸군대(AA)와의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 ©Hanna Yu, 국경없는의사회

가에서 복음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재설정되고, 기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pewresearch.org)

◇나이지리아 기독 여성단체, 고통받는 여성들의 회복을 위해 힘써와

늘승리하는복음교회(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 ECWA) 소속의 여성단체가 94번째 나이지리아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회복을 위해 힘써 오고 있다. 하우스어로 '기독 여성의 진복'(zumumta mata)을 뜻하는 이 단체는 1930년 미앙고(Miang) 마을에서 한 여성이 출산 중 사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ECWA의 기독 여성들은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자선기를 기부하는 일로 사역을 시작했다. 로코자연방대학교(FUL)의 오글리(Godwin Ogli) 교수는 특히 플래토(Plateau)주에서 이 단체들이 교회의 팔이 되어 많은 여성들을 교회로 이끌었다고 말한다. 최근 나이지리아 여러 마을에서 폭력 사태가 확대되면서 ECWA 여성단체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다. 이 단체는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돌보고, 그녀들의 아이들을 씻기거나 음식을 제공하고, 일생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카두나(Kaduna)시 외곽의 작은 마을 간고라(Gan Gora)에서는 정기적으로 여성 합창 공연이 실시되고 있다. 공연 후에는 성경 교육과 함께 생활비를 베푸는 데 유용한 액체 세제나 음식 만드는 교육도 진행된다. 지난 13년 동안 합창단을 이끌어온 스테펜(Lucy Stephen)은 음악이 이들을 신앙으로 결속시켰고 삶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한다. 나이지리아 교회들이 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돕는 데 더 힘을 모으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 나이지리아 여

성들이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theguardian.com)

◇나이지리아 귀국 이주민, 재통합 훈련으로 새 삶 되찾고 있어

2017년 나이지리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려고 계획했던 프레더릭(Frederick)은 이민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 밀수업자로 부터 학대를 당한 뒤 가까스로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며 이발소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프레더릭과 같이 빈곤에서 탈출하고자 이주 행렬에 올랐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이지리아인들이 국제이주기구(IOM)에서 주도하는 종합 코칭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새 삶을 되찾고 있다. IOM은 2022년 12월부터 나이지리아 에도(Edo)주 베닌시티(Benin City)에서 귀국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상담 치료를 제공했고 지금까지 145명이 이 훈련을 이수했다. 베닌시티 지부 책임자인 타레켄(Wintana Tarekegn)은 이들의 재통합을 위해 재정 지원을 넘어 이주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었고, 토지를 비롯한 소유 재산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2017년 리비아에서 돌아와 2023년에 훈련을 이수하고 지금은 자신만의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블레스(Blessing)는 무엇보다 이곳에서 우울했던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어 회복을 꿈꾸게 됐다고 말한다. 나이지리아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생계를 위해 고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재통합하도록 돕는 장치들이 마련되고, 특히 나이지리아 교회들이 이들의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94번째 나이지리아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회복을 위해 일해 늘승리하는복음교회 소속 여성단체는 최근 여러 마을에서 폭력 사태가 확대되면서 그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다. 이 단체는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돌보고, 그녀들의 아이들을 씻기거나 음식을 제공하고, 일생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정기 여성 합창 공연, 성경 등 각종 교육을 한다. ©ECWA 페이스북

기도하자. (출처 storytelleriom.int)

www.afrobarometer.org

◇에티오피아, 양성평등 인식 높아졌지만 실질적 평등은 아직 멀어

범아프리카 연구네트워크인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가 6월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에티오피아인들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용과 공직 분야에서 이러한 생각은 각각 73%, 83%로 조사되었고, 재산이나 상속에 있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78%로 조사됐다. 에티오피아는 1993년 여성에 관한 국가 정책을 발표했다. 1995년 연방 헌법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 보장을 제차 확인했다. 그 결과 2018년 연방 의회에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기도 했고, 의회 의석 비율은 2010년 28%에서 2015년 39%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는 있어서는 아직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의 비율은 39%로 남성보다 10%가 높았다. 고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비율은 남성이 16%였지만 여성은 9%에 그쳤다. 휴대 폰이나 은행 계좌를 소유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과 비교해 각각 8%, 13% 적었다. 이뿐 아니라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비판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은 46%로 나타났고, 가족 간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44%로 조사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에서 에티오피아는 193개 나라 중 17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교육에 대한 기회가 더욱 보장되고, 가족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afrobarometer.org)

◇남아공 교회들이 착취당한 광부들의 법적 소송 돕고 있어

금과 다이아몬드 채굴로 유명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산 산업이 쇠퇴하면서 광부들의 체불 임금과 장애 수당에 관련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했던 광부들과 미망인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만한 비용이 거의 없다. 급기야 2023년 10월과 12월에는 불만을 품은 광산 노동자들이 동료 광부들을 인질로 잡고 광산 소유자를 향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0년 전 폐병으로 사망한 광부의 미망인 아넬레(Jane Anelle)는 고용주로부터 가족 위로금을 받지 못했고,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연금도 받을 수 없었다. 60세의 광부 마사바는 5년 동안 일하다가 낙상으로 부상을 입고 해고된 후 두 달 치 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의 비율은 39%로 남성보다 10%가 높았다. 고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비율은 남성이 16%였지만 여성은 9%에 그쳤다. 휴대 폰이나 은행 계좌를 소유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과 비교해 각각 8%, 13% 적었다. 이뿐 아니라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비판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은 46%로 나타났고, 가족 간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44%로 조사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에서 에티오피아는 193개 나라 중 17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교육에 대한 기회가 더욱 보장되고, 가족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지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공보권익실심(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자료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지보도 안) 노란우산은 예금보유자에게 따라 예금보유공시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금제도(제2020)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매 회계연도 하반기에 일부 공제금 보유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또한 노란우산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한 사명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직원을 참조하십시오.

파키스탄 의회, 기독교인 남녀 법적 결혼 연령 18세로 상향

파키스탄 의회가 기독교인의 최소 결혼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소수 민족 어린이들을 아동 결혼, 성적 학대, 강제개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이 법안은 앞서 소녀는 13세, 소년은 16세에 결혼하는 것을 허용했던 1872년 기독교인 결혼법을 개정한 것으로 소수민족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제공했다.

새 법안은 두 명의 당사자가 모두 18세가 되어야만 결혼을 거행하고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연령의 경우, 법원은 컴퓨터화된 국민 신분증, 출생증명서, 교육 증명서 또는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건강감진 보고서와 같은 사용 가능한 문서를 기반으로 연령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감시단체인 '법률 지원 및 정착 센터의 나시르 사이드 이사는 이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CP에 "이 개정안은 기독교 공동체의 오랜 요구였다"면서 "이 개정안은 미성년 기독교인 소녀의 강제 결혼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들의 건강, 교육 및 전반적인 웰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나비드 아미르 지바(Naveed Amir Jeeva) 의원이 발의한 기독교 결혼(개정)법안(2024)이 올해 초 상원의 지지를 받은 데 이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파키스탄 천주교 주교회의(CBCP)는 '국가 정의와 평화 위원회(NCJP)를 통해 이 개정안을 열렬히 환영했다. CBCP 의장인 샘슨 슈카르딘 주교는 NCJP 내셔널 디렉터 베르나르 에마누엘 신부와 NCJP 사무국장 나임 유사프와 함께 입법적 변화를 환영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체 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 법안은 미성년 소녀들을 강제 개종과 아동 결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가 강제 개종 개종을 범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임 유사프 국장은 "이 법안의 장점은 파키스탄의 모든 주요 교회의 합의에 따라 제출되었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소녀들을 보호하고, 특히 교육, 건강 및 기타 보호적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률로 발효될 예정이다. '연대와 평화 파키스탄 운동'이 2014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힌두교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약 1천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매년 납치되어 납치범과 강제 결혼하고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한다고 추정했다.

미국의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O)에 따르면, 종교 문제가 종종 성폭행 사건에 개입돼 소수 종교인 피해자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종교적 편견을 이용한 가해자는 종교적인 요소를 도입해 범죄를 은폐하고 정당화했다.

미국 국무부의 2023년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는 "사회 정의 센터가 2023년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 여성과 소녀들의 강제 결혼과 개종 사례가 최소 103건이라고 보고했다"고 인용했다.

지난 1월 유엔 전문가 패널은 파키스탄에서 소수 종교인 민족의 미성년 소녀와 젊은 여성에 대한 납치, 강제 결혼 및 개종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경각심을 표명했다. 패널은 파키스탄 정부에 "이러한 관행을 억제하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명경 기자

“美 기독교인들, 정치적 사고에 신학적 내용 필요”

미국의 신학자 앨버트 몰러와 더글러스 윌슨 목사가 정부에서 기독교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회 전미 보수주의 대화' 패널 토론에서 '서구의 의미와 도덕성의 위기'라는 제목을 언급한 두 신학자는 기독교인이 서구 세계, 특히 미국에서 국가의 기독교적 기반을 '극대화'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윌슨 목사는 30년 이상 아이다호주 모스크바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CREO)에서 목회했으며, 최근 '단순한 기독교: 기독교를 현대문화로 되돌리기 위한 사례(Mere Christendom: The Case for Bringing Christianity Back into Modern Culture)'를 집필했다. 모홀러 박사는 1993년부터 켄터키 주 루이빌에 소재한 남침례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총장을 역임했다.

복음주의 매체 '데일리 와이어의' 기자인 매건 바삼도 이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했고 윌슨 목사와 모홀러 박사의 토론 중 주요 내용을 X(구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대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윌슨과 모홀러가 모두 정치 분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명확히 밝힌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모홀러 박사는 "레이건 혁명 당시 기독교인들은 각성된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정치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며 "오늘날 그들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신학자 앨버트 몰러(좌)와 더글러스 윌슨 목사(우)가 지난 7월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회 전미 보수주의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X/Megan Basham 캡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윌슨 목사는 이에 동의하며 "영향력 있는 20세기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셰퍼는 정치적 에너지에 도덕적 토대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사고에 신학적 내용이 필요하다"며 오늘날 그러한 내용이 크게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홀러 박사는 "모든 사람, 모든 시민이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 문명의 기독교적 구조와 그 헌신을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신약성서 기독교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루이지애나 공립학교에서 심계명을 의무적으로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모홀러 박사는 이를 "좋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최근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교실과 주내 모든 K-12 공립학교 및 대학 교실에 '크고 알기 쉬운 글씨체로 심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와 같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홀러 박사는 "하나님의 도덕률을 인정하는 것은 나쁠 수 없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윌슨 목사는 또 신앙이 정치와 공공 장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반박했다.

그는 "기독교의 미덕은 찬양되고 인정 받았지만, 사회적 영역에서만 그려졌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에 대한 급진적인 오해를 드러냈다"라고 했다.

이명경 기자

예멘 후티, 이스라엘 도시와 아덴만의 이 선박에 또 미사일 공격

14일 아덴 만에서 선박 공격.. 알-마시라 TV 밝혀 미군도 무인기와 선박파괴, 호데이다 공항도 폭격

예멘의 무장 후티 반군은 14일(현지시간) 아덴만에서 이스라엘 선박 한 척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국내 도시 예일라트에도 미사일 공격을 한 것이 자카툰이라고 발표했다.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레아 대변인은 이 날 후티가 운영하는 알 마시라 TV로 중계된 공식 발표에서 "우리 무장군이 이스라엘 선박 MSC 유니픽(UNIFIC)호를 아덴 만에서 미사일로 폭격했으며 이스라엘 도시 예일라트 시내도 공격했다"고 밝혔다.

후티군은 예일라트 시내의 '군사 목표물'들은 무인기들을 동원해서 공격했다

고 덧붙였다. 후티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내는 그 날까지 후티군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목표물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중부군사령부도 이 날 지난 24시간 동안 홍해에서 2대의 무인기와 1대의 무인 공격선을 파괴한 사실을 발표했다.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 X계정을 통해 발표했다.

14일 이보다 앞서 후티군 TV는 마영해군의 연합군이 홍해의 호데이다 항구 도시에 있는 호데이다 공항에 두 차례나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후티군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으로

여기는 홍해 여객선과 화물선을 대량 탄도미사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부터이다. 이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유대를 표시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후티군은 밝혔다.

후티군의 압둘말리크 알후티 지도자는 지난 주 TV연설에서 "후티군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미국, 영국과 연계된 합선 총 166척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 곳 해역에 주둔중인 마영 해군 연합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올 해 1월부터 후티군에 대해서 공습과 미사일 포격으로 보복 공격을 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확전의 역효과만 불러와서, 현재 후티군의 공격 대상은 미국과 영국의 일반 상선 뿐 아니라 전함들에게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차미혜 기자

중러 합동훈련 참여 군함 7척, 中광동성에 집결

중국과 러시아가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을 중국 남부 광동성 잔장에 집결시켰다.

13일 중국 관영 중앙(TV) 등에 따르면 '중러 해상 연습-2024'에 참가중인 양국 군함과 병력이 전남 오전 잔장에 있는 모군용 항구에 집결했다.

중국 측은 항구에서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 환영식을 개최했다.

중국 측은 미사일 구축함 난닝함과 미사일 호위함 센닝함과 다리함, 보급함 웨

이산후함 등 4척이, 러시아 측은 호위함 롬키함과 레스키함, 보급함 이르쿠트함 3척 등이 이번 합동훈련에 참여한다.

양국 군이 공식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예정된 양국 군의 합동 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국방부도 자국 군함이 중국 항구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15-17일 실시되는 1단계 훈련에서 방공, 대잠수함 중목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사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양국의 연례 계획과 양국 간 공동인식(합의)에 의해 7월 중순 잔장 인근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훈련의 목적은 양국의 해상 안보 위협 공동 대응과 국제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또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예성 기자

125th Anniversary

국민생활건강 캠페인

동화약품 SINCE 1897

N°20 건강한 인사법



일러스트: 양나영

SAMSUNG

Galaxy Z Fold6 | Z Flip6

Galaxy AI ✨ is here



역대급 강력한 AI 폴더블 폰의 탄생

사전판매 24.07.12~24.07.18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플렉스 모드는 75°~115°의 각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FBI,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단독 범행’ 잠정 결론

범행 동기와 추가 계획 여부는 여전히 의문... 공화당 전당대회 영향 주목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암살 미수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추가 계획 여부 등 여러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암살 미수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추가 계획 여부 등 여러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반자동 소총을 발견했으며, AP 통신은 이 총기가 크록스의 아버지 소유였다고 보도했다. 유세장 인근에 주차된 크록스의 차량 내부에서는 사제폭탄을 포함한 폭발물이 발견됐고, 그의 집에서 폭탄 제조용 재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비밀경호국 경호 체계에 대한 의문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24시간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고 있으며, 유세장에서는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 크록스는 트럼프

가 서 있던 연단으로부터 약 140m 떨어진 행사장 밖 지붕 위에서 저격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캐리 피터스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위원회가 청문회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도 의전 문제로 부적절한 자금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부터 시작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측은 기존의 보안 계획에 변동

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FBI 특수요원도 전당대회나 방문자에 대한 “알려진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저녁 위스콘신 밀워키에 도착했으며, 18일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온라인 광고를 중단하고 공식 유세 일정을 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에 이런 종류의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며 과열된 정치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식 기자

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FBI 특수요원도 전당대회나 방문자에 대한 “알려진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저녁 위스콘신 밀워키에 도착했으며, 18일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온라인 광고를 중단하고 공식 유세 일정을 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에 이런 종류의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며 과열된 정치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식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에 충격받은 공화당 지지자들, “단결” 강조

일부, 민주당 배후설 제기... 공화당, 대선 승리 위한 결집 분위기 조성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만난 공화당 지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표명했다. 밀워키 거주 공화당원 브래드씨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였고, 전직 대통령에게는 특히 그렇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위스콘신주의 다른 지역

에서 온 캐런씨도 사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참가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

상을 입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20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록스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와 단독 범행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다.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거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60대 백인 부부는 민주당을 비난하며 “정적을 죽이고 국가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일야말로 모두 그들이 한 일”이라고 말했다. 밀워키 도심을 지나던 케시씨도 “사

건의 책임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 같다”며 불안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브래드씨는 “이번 사건이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그저 공화당원들이 밖으로 나와 투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화당 내 결집이 높아지고,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감도 감지됐다. 캐런씨는 “이제 공화당은 하나로 뭉쳐

야 한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그(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도 이번 사건을 유권자들을 단합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루스소셜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단결해 미국인으로서 진정한 특성을 보여주고, 강하고 결단력 있게 악의 승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지 하루 만에 밀워키로 이동하며 전당대회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섰던 나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뒤늦게 전당대회 연사로 초청된 것도 유권자 단결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초 초청받지 못한 헤일리 전 대사가 전당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남윤식 기자

내년 입주 가능!

당신의 건강 기대수명을 늘려 드립니다

하이엔드 호텔식 시니어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백운호수

청계C

백운호수역(가칭) 신설 예정

입주부터 식사와 문화생활까지 한번에, 호텔형 생활 서비스

- 액티비티존 |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 힐링존 | 사우나, 바다케어센터, 메디컬센터
- 리빙존 | 레스토랑, 올데이 클래스, 컨시어지 데스크
- 커뮤니티존 | 커뮤니티 광장, 다목적홀, 라이브러리, 맨즈클럽

월드컵 경기장 2개 규모의 약 3,500여평 초대형 커뮤니티

- 365일 식사서비스**
전문영양사가 제공하는 1일 3식 맞춤형 건강식단
- 하우스키핑 서비스**
주 1-2회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서비스
- 메디컬케어 서비스**
24시간 간호사 상주 및 건강검진 연 1회
- 올데이 클래스**
음악, 체육, 문화, 교양 등 다양한 문화강좌 클래스

총 536세대 1577-5052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8명 확정, ‘선명성 경쟁’ 우려

예비경선 통과한 후보들, 대어 투쟁 의지와 ‘진짜 이재명계’ 부각... 본선에서도 과열 양상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예비경선을 통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고위원 후보들은 20일 제주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나선다. 전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예비경선대회를 통해 13명의 후보 중 8명이 본경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는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형배, 김병주, 이연주(기호순)이다. 이 중 7명이 현역 의원이며, 원외 인사로는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다.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선출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형배, 김병주, 이연주 최고위원 후보. ©뉴스시스

박용국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즉시 반환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

김건희 여사(사진)가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당일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지난 3일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

다 유 행정관은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면담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여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명품백은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가방은 현재 포장된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반환 지

박용국 기자

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가 피해 우려에 신속한 응급 복구와 사전대비 태세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이다.

김수경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들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며, 정부

박용국 기자

정부 재정적자 74조 원 돌파, 연간 100조 원 적자 우려 고조

기재부, 추경 및 적자구채 발행 거부 세계잉여금과 여유자금 활용 방침

올해 5월까지 정부의 재정적자가 74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58조 2000억 원, 누계 총지출은 310

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77조 9000억 원) 이후 5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설정한 관

리재정수지 적자 목표 91조 6000억 원의 81.2%를 5월까지 이미 달성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2분기에 주요 세입이 적은 것이 통상적이며,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을 통해 하반기에 재정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간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적자구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지난해 예산 집행 후 남은

세계잉여금과 여유자금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불용을 유도하거나 외국환 평형기금 등을 활용해 통계적 적자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을 통해 지방정부에 손실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 전문가들은 나라살림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불용액을 자의적으로 늘리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국회가 심의확정한 지출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불용액이 역대 최대인 45조 7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로 인해 내수 위축과 세수 감소,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악영향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을 통해 국제발행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체 내 여유자금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로 91조 원을 계획했는데,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추경을 통해 감액추경을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정부,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에 77억 원 투입

전년 대비 19배 증가... 공공 범용, 공공 특화, 현안 해결 3개 분야 8개 과제 선정

정부가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지원에 7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억 원 수준이었던 예산에서 19배나 증가한 규모다.

15일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올해 초거대 AI 공공 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의 AI 활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

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사업을 공공 범용, 공공 특화, 현안 해결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서 총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AI 근로감독관, 스마트 소방 안전,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등이 포함 되어 있다.

공공 범용 분야에서는 민원, 행정 등 공공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향후 확산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공공 특화 분야는 공공기관의 도메인 지식이나 특정 분야 데이터를 학습한 서비스를, 현안 해결 분야는 의료·보건, 복지 등 사회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춘 예정이다.

이날 고진 위원장 주재로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지원 통합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고용노동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과제 수요 부처 기관들과 AI 공급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8개 과제별로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수행 방안을 점검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간 총성 없는 AI 전쟁에서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 모델을 구현해 수출하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학습한 서비스를, 현안 해결 분야는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 초거대 AI를 적극 도입하고 국산 초거대 AI 모델의 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G3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공공영역을 포함한 일상에서 초거대 AI 기반의 혁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정부의 대규모 투자는 초거대 AI 기술 발전과 공공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향후 이 사업들을 통해 개발될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이나래 기자

삼성전자 노사, 파업에 따른 반도체 생산 차질 놓고 평행선

노조 "8인치 라인 가동률 급감"… 사측 "생산 차질 없어"

삼성전자 노사가 현재 진행 중인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 8일차를 맞은 가운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삼노는 파업 첫날부터 8인치 일부 라인에서 가동률이 급감하는 등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기흥사업장 8인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6·7·8라인의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라인의 가동률이 기존 80%에서 1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에는 웨이퍼 투입이 전무해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생산 차질의 주요 대

상인 8인치 공정은 자동차가전 등에 사용되는 레거시(구형)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라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공정이 삼성전자 전체 반도체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가동률이 떨어져도 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삼노는 또한 8인치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가혹한 육체노동으로 인해 소위 '갈병'을 달고 살고 있고, 수작업으로 손가락이 뒤틀리고 변형되는 것은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건강증진, 질병 예방, 출장자 건강관리, 작업환경 개선 등 4가지 대표적인 보건 지원을 통해 임직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매년 임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예방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에서 유해 인자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돌입한 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추경·제거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삼노는 삼성전자 내 5개 노조 중 최대 규모로, 조합원 수는 3만2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5.6% 수준이며, 노조원 상당수는 반도체 부문 소속이다.

이번 파업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영향력으로도 인해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다. 블룸버그, BBC,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으며, 일부 매체는 삼성전자가 노조의 파업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나래 기자

자영업자들, 배민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사측 "과장된 주장"

배민 "중개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인하 병행... 업주 부담 최소화"

자영업자 단체들이 15일 배달의민족(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배민은 수수료 인상이 과장됐으며 실제 업주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공플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근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각종 수수료 인상으로 점주들이 받는 압박은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달업 중개수수료 인상

은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김영무 공플모 공동대표는 "이번 수수료 인상은 결국 전체 업주들에게 음식 가격을 올리라는 의미"라며 "음식가격 인상은 업주도 소비자들도 윈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0일 다음 달부터 '배민플러스'의 중개이용료율을 현행 6.8%에서 9.8%로 3%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수수료를 44% 인상했다"며 과도한 수수료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함께 배달비 인하를 병행했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이번 요금

제 개편이 '배민플러스'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했다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민은 배달 중개 이용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 낮출 예정이다. 지역별로 2500~3300원 수준의 업주 부담 배달비를 1900~2900원으로 최대 24%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기준으로 주문액 1만원~2만5000원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하면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률은 약 0.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 측은 중개수수료율과 음식 가격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며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자영업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뉴스시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교회 홈페이지에 글 게재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12일 교회 홈페이지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막 8:31-38)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황 목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하물며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며 “하지만 모든 성도가 제자답게 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성도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성도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고백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믿음은 신앙고백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신앙고백을 통해 구원이 임하고 새로운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된다. 그렇기에 신앙고백

은 중요하고, 그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신앙고백이 과거의 것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을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며 “물론 과거 어떤 순간의 신앙고백도 중요하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바로 이 순간 내 심령의 신앙고백을 받으시겠다고 했다.

더불어 “에베소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성령의 책망을 받았다”며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당연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모두 십자가에 죽는 것이며, 죄 된 내 생각, 판단, 경험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자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절대로 자기주장이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앞장서신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목사는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며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한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했다.



황덕영 목사 ©기록일보DB

또한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짐을 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라며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에 생명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것이며, 하

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성도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짐을 다 벗고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그 어디서든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신앙고백이 있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으로 살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그것들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만일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실 것”이라며 “우리가 제자로서 좁은 길을 가지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수 있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한국교회 문화선교, 생명존중 최우선의 문화운동으로 이어져야”

백광훈 원장, ‘인구 국가 비상사태 시대의 문화선교’ 주제로 메시지 전해



백광훈 원장 ©유튜브 문선전 TV 채널 영상 캡처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이 지난 11일 ‘인구 국가비상사태 시대의 문화선교’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백 원장은 “최근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상태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다각도의 출생장려대책을 내놓았다”며 “아빠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고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 관련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했다.

이어 “2024년 1분기 합계 출생률 0.76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추세가 멈추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며 “높은 주거비용, 열악한 육아 환경, 극심한 경쟁 문화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젊은 세대들에 두렵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책들이 출산을 반등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출생률 쇼크의 저변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드리운 생명경시와 물질주의의 문제가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생명보다 물질, 돈이 중요하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우선시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물

질주의가 두렵게 자리잡고 있음을 본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문화선교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비추어볼 때 생명을 존중하고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운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극도의 물질주의가 상식이 되는 시대 속에서 돈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가치, 곧 나와 타자, 더 나아가 지구 공동체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함양하는 문화 만들기과 공동선의 증진을 복음 전파와 함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목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다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약자들이 보호받고, 젊은 세대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생명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는 살 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데에 교회의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교회 공동체가 꿈꾸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극도의 출생률 저하라는 한국 사회의 실존적 위기와 문제 앞에서 보다 온전하게 실천해 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민족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정”

임성빈 박사, 최근 문화선교연구원 홈페이지에 글 게재



제 21대 장신대 총장 임성빈 교수 ©기록일보DB

임성빈 박사(장신대 전 총장, 문화선교연구원 CVO)가 최근 문화선교연구원 홈페이지에 ‘통일 민족 구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임 박사는 “20세기의 한국 역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통일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그러나 통일은 감성적인 통일론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박찬 현실이며 먼 미래”라며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통일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통일의 준비를 신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만의 구원을 넘어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한 구원 열망을 품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임 박사는 “세상 근심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위한 근심은 신앙의 성숙과 함께 결국에는 사라져야 한다”며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신다. 성령

안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경계를 만들고 서로를 향한 적대감 표출을 점점 더 강화하는 ‘한반도의 현실’, 그리고 온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이의 간극을 가슴 깊이 인정해야 한다”며 “세상 근심과 나 중심적인 신앙 양식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갈등과 적대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으로 우리 신앙의 열심을 재정향해야 한다”고 했다.

임 박사는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현실에서의 노력과 애씀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께서 알려주신 평화의 방법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민족에 대한 고민과 염

려를 가지고 그 구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민족의 구원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민족을 향한 절절한 사랑도 결국은 세계구원, 하나님의 의, 하나님 주권의 온전한 실현,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기중심적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어그러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인으로 존재하려 애쓰는 모든 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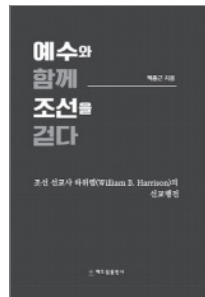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조정펀드
 - 기업구조조정신원보증(국가)
 - 경고신탁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백종근 목사의 '하위럼 선교사 조선 선교행전'(1)

백종근 목사



도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건다'

백종근 목사의 저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건다』는 1896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전주와 군산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평생을 보내며 이 지역의 유무형의

선교 인프라를 깔아 호남선교의 토대를 마련한 하위럼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를 담은 책이다. 그 내용을 수회에 나누어 본지에 실는다.

제1장 하위럼(William B. Harrison)의 고향 켄터키

◆서부로 가는 관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에는 주로 동부 해안가에 사람들이 몰려 살았다. 1750년에 토마스 워커(Thomas Walker)라는 영국인 의사가 애팔래치아 산맥을 넘어 서부로 가는 고갯길을 발견했는데 얼마 후에 탐험가 다니엘 분(Daniel Boone)이 사람들을 이끌고 협곡을 넘어와 이 지역에 살던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정착하면서 이 땅을 켄터키로 불렀다. 이때부터 켄터키는 서부로 가는 관문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침 미국이 독립을 외치며 영국과 전쟁을 벌이자, 켄터키를 잃었던 인디언들은 마침내 백인들을 쫓아낼 기회로 여기고 정착민들을 배후에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다니엘 분(Daniel Boone)의 딸을 포함한 몇몇 정착자들이 인디언에게 납치되었던 사건도 이 무렵의 일로, 이때 인디언들을 쫓아가 붙잡힌 사람들을 모두 구출했다는 다니엘 분의 이야기는 서부 개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가 되었으며, 그의 무용담은 후에 <모하칸족의 최후>라는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남북전쟁과 켄터키

토착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켄터키에 정착한 백인들은 비옥한 이 땅에 아프리카에서 싹쓸이 팔려온 흑인 노예들을 끌어들여 대규모 담배와 목화를 경작해 엄청난 호황을 누렸으나, 반면에 노예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켄터키는 노예주였다. 켄터키와 오하이오를 남북으로 나누는 오하이오 강이 미국을 지역적으로 가르는 경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하이오는 자유주임을 내세웠고, 켄터키는 노예제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작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켄터키는 노예제를 옹호하면서도 북부와도 손을 잡고 중립지대로 남고자 했다.

이를 지켜보며 못마땅해하던 남군이 그해 여름 켄터키주의 서부를 공격하며 응징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부에서도 윌리엄스 그랜트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 순식간에 퍼듀카(Puducak)를 점령해 버리고 말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주 정부는 자신들이 주를 지키려는 명분을 앞세워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 남군과 대치하면서 주민들의 정서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북부의 편에 섰다.

이처럼 켄터키는 점령지대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남북 어느 쪽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켄터키는 남북전쟁 내내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1862년 1월 북군은 밀 스프링스(Mill Springs)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8월에는 리치몬드(Richmond) 전투에서는 남군이 이겼으나, 곧이어 10월에 있었던 북군의 부엘(Don C. Buell) 장군과 남군의 브래그(Braxton Bragg) 장군이 이끄는 페리빌(Perryville) 전투는 남북전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양쪽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결국 남군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켄터키 주민들의 민심은 주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남부에 강한 동경심을 보였다. 왜냐하면, 북부의 손을 들어준 주 정부에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노예들을 해방하자 주민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입은 엄청난 손실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었다.

노예제의 폐지로 일순간에 대농장의 지주들이 몰락하면서 남부의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북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구조조정으로 미국의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서부로 향한 철도가 놓이자 오하이오 강을 따라 형성되어 왔던 물류 산업들은 순식간에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잇달아 남부의 젓줄, 미시시피강의 뱃길을 따라 교역을 하던 강변의 작은 항구마저 속속 몰락하면서 대부분의 남부의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켄터키 경제 역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몰락한 켄터키의 농장주들은 자구책을 강구했다. 1870년대부터 서부 진출을

위한 말의 수요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하고, 담배와 목화 대신 초지를 일궈 말을 사육하면서 켄터키를 점차 종마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해 활로를 뚫는 한편 사양길로 접어든 담배 대신 옥수수를 재배하고, 다시 옥수수를 발효시킨 위스키를 빚어내 켄터키를 위스키의 고장으로 만들어 갔다. '버번 위스키'(Bourbon Whisky)로 불리는 켄터키산 위스키는 이렇게 탄생했으며 호밀을 원료로 한 스카치 위스키를 대신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출생과 성장

하위럼(William B. Harrison)은 남북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그 이듬해인 1866년 9월 13일 켄터키주 레바논(Lebanon, KY)에서 태어났다. 켄터키는 그의 증조부가 버지니아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이래 그의 가족사의 주 무대가 된다.

그의 조부 윌리엄 해리스(William Burr Harrison)이 20세 나이에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안타깝게도 결혼 5년 만에 아내가 죽고 말았다. 얼마 후 그의 조부는 김스(Elizabeth Gibbs)라는 아가씨와 재혼해서 아들 하나를 더 두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재혼한 아내와 핏덩이 아들을 남겨둔 채 자신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때 조부가 후처 김스(Elizabeth Gibbs)에게서 얻은 그 아들이 바로 하위럼의 아버지 찰스(Charles B. Harrison)였다. 살길이 막막했던 김스는 얼마 후 어린 찰스를 데리고 재혼하게 된다. 하위럼의 조모 김스와 재혼한 남편 사이에는 자식이 없이 찰스(Charles B. Harrison)만 외아들로 키웠다.

찰스는 어렸을 때 돌아가신 생부의 농장이다 자식이 없이 사망한 계부의 농장까지 물려받으며 전형적인 농장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28살이 되던 1858년 8살 연하의 아가씨 엘리자(Eliza Lisle)와 결혼해, 그녀와의 사이에 6남매를 낳았다. 하위럼은 그중 셋째로 위에 누이와 형이 하나씩 있었고, 아래로는 남동생과 두 명의 여동생이 더 있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켄터키주 여느 농장주들과 마찬가지로 찰스(Charles B. Harrison) 역시 담배를 경작해 접착한 호황을 누렸으나 앞에서도 언급했듯 노예 해방령이 내려지면서 그의 담배농장도 예외 없이 급속히 사양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남부의 노예들은 해방이 되자 자유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다는 기대로 크게 반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농장주로부터 독립해

1870 United States Federal Census, Kentucky Marion Lebanon

자신이 살던 농장을 떠날 수도 없는 처지였다. 말만 자유 신분이 되었지, 생계가 여의치 않은 흑인들은 그대로 주인집에 눌러앉아 하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찰스는 여전히 집안에 흑인 노예들을 하인으로 거느리고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1870년 연방 인구조사 기록에서 보이듯 가사를 돌보는 사시 대 중반의 흑인 여자 마리아(Maria)와 농장에서 일하는 루이스(Lewis)라고 불리는 오십 대 초반의 남장년, 그리고 그의 아들이 찰스의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이렇듯 남북전쟁이 끝나고도 한참이 지났지만 하위럼은 흑인 하인들이 가족들의 시중을 듣거나 누나와 형을 마차에 태워 읍내 학교까지 통학시키는 것을 보며 자랐다. 레바논 읍내를 포함한 마리온 카운티(Marrion County)의 농장주들의 자녀들은 거의 흑인 하인들이 모는 마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하위럼 역시 읍내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 읍내 주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남북전쟁의 치열한 격전지가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의 숲길을 따라 조금만 들어가도 당시 전투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 근처에 사는 아이들은 숲속에서 가끔 병사들의 색바랜 견장이나 녹슨 칼 혹은 부러진 총자루 같은 것을 발견하기도 하면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 가방 깊숙이 넣어 학교에 가져와 또래의 아이들 앞에 펼쳐놓고 마치 자기들이 전투에 참여한 군인이나 된 것처럼 으스스거리며 신나게 떠들어 대기도 했는데, 남부군과 북부군들의 용맹성을 비교하는데 이르던 그들은 으레 편이 갈려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모 교회 레바논 장로교회

초기 개척자들이 켄터키로 들어와 정착한 시기가 1773년 무렵이었고, 미국 독립(1776)을 전후해 켄터키로의 본격적인 이주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1789년에 세워진 레바논 장로교회는 레바논에 자



2014년 레바논 장로교회 교인인 카티나 존슨(Katina Johnson)은 교회의 역사를 회고하며 수채화 한 점을 그렸는데, 화폭 안에 통나무로 지은 캐빈 교회(Cabin Church)를 현재의 교회 옆에 함께 그려 넣음으로써 교인들로 하여금 225년(1789~2014) 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했다.



현재의 레바논 장로교회 모습

리를 잡은 초기 정착민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 후 처음 세워진 통나무 교회를 헐고 그 자리에 목조건물로 몇 차례 개축을 거듭하다가 바로 그 옆자리에 지금의 석조 건물을 다시 신축했다.

켄터키에 자리 잡은 하위럼의 집안은 스코틀랜드인 후예답게 그의 선대 조부 터 대대로 장로교 집안이었다. 하위럼의

조부(William Burr Harrison)로부터 시작해 아버지(Charles Butler Harrison)로, 다시 하위럼 자신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은 경건한 장로교의 전통 속에서 자랐으며, 주일이 되면 앞에서 언급한 읍내에 있는 레바논 장로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출석했다. 레바논 장로교회는 하위럼의 가족과 삶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신앙과 교육의 공동체였다.

◆백종근 목사

한국에서 한양대 공과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산업연구원(KIET)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미국에 유학 후 신학으로 바뀌어 오스틴 장로교 신학교(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 과정을 마치고 미국장로교(PCUSA)에서 목사가 되었다. 오레곤(Portland, Oregon)에서 출근 목회 후 은퇴해 지금은 피닉스 아리조나(Phoenix, Arizona)에 머물고 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남장로교 초기 선교역사에 매달려 『하나님 나라에서 개혁을 보다』와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건다』 두 권의 저서를 냈으며 그 가운데 하위럼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를 기록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건다』는 출간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스탠포드대학 도서관 Koean Collection에 선정되어 소장되기도 했다. 백종근 목사는 하위럼 선교사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미국과 한국에서 설교하고, 지역 교회사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자료를 정리해 집필 중에 있으며 한편 디아스포라 선교역사 연구회를 결성해 미주 한인교회 역사를 찾고 있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프로피렌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좌),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소아기 젠더불쾌증과 드랙퀸의 이야기 시간

민성길 교수
연세의대 명예교수



크리스천이 본 젠더

트랜스젠더 남아아이들은 여자가 되고 싶어 하고, 심지어 여자라고 우기고, 여자 옷을 입고, 여자 아이들의 놀이를 한다. 그러지 못하게 하면 반항하고 운다. 가능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성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들은 특히 소꿉장난을 즐기고 예쁜 소녀나 공주를 그리며 마음에 드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며 즐긴다. 바비 같은 전형적인 여성형 인형을 좋아하고, 소꿉친구로 여자아이를 선호한다. 어머니를 과도하게 동일시(overidentification) 하여, 예를 들면, '집놀이를 할 때면 거의 대부분 여자, 특히 어머니 역할을 한다. 가끔 환상적인 여성적 자태에 집착한다. 거친 놀이나 다투는 운동은 피하고, 장난감 무기가 트럭에는 관심이 적다. 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라서 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서 소변을 보며 남근을 다리 사이에 감추고 남근이 없는 체하기도 한다. 드물게는 남근이나 고환을 혐오하여 제거하기를 원하거나 여성의 성기를 갖기를 원한다. 이들은 종종 아이들로부터 놀림 받음으로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합병증으로 동성애 또는 소수에서는 성전환증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여자아이의 경우는 남자가 되고 싶어 하고, 심지어 남자라고 우기며, 남자 옷을 입고, 남자놀이를 즐겨 한다. 부모가 여자 옷을 입거나 기타 여성적인 차림새를 갖추려 할 때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여자 복장을 해야 하는 학교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린다. 남자 옷이나 짧은 머리를 좋아하고 남자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상상 속의 영웅은 배트맨이나 슈퍼맨 같은 대부분 힘센 남자 모습이다. 놀이친구로는 남자아이를 선호하고 인형이나 여자 옷에는 관심이 적고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는 운동이나 거친 놀이 등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놀이에 관심이 많다. 자라서 남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역할, 꿈, 상상에서 뚜렷한 반대 성에 대한 동일시를 나타내 보인다. 음경이 자랄 것이라든가 음경을 가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서서 소변을 보려고 하고, 유방이나 월경을 거부한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여, 교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 미국 정신의학회의 2023년에 출판된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제5개정판 텍스트수정판

(DSM-5-TR)의 소아기 젠더불쾌증의 진단기준을 소개한다: 개인의 경험/표현된 젠더와 지칭된 젠더(생물학적 성을 의미함) 사이의 현저한 불일치로서, 최소한 기간이 6개월이며, 다음 중 최소한 6개로 나타난다: ① 다른 젠더(또는 주어진 젠더와 다른 어떤 대안적 젠더-젠더퀴어를 의미함)를 강하게 소원하고 다른 젠더(또는 주어진 젠더와 다른 어떤 대안적 젠더)를 주장한다. ② 소년인 경우, 반대성(여성) 복장이나 여자 모습의 옷 입기나 흉내 내기를 강하게 선호하고, 소년인 경우 전형적인 남성적 옷 입기를 강하게 선호하고 전형적인 여성적 옷 입기를 강하게 거부한다. ③ 흉내 (make-believe) 놀이나 공상놀이에서 다른 젠더 역할을 하기를 강하게 선호한다. ④ 다른 젠더의 소아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또는 노는 장난감, 게임 또는 활동들을 강하게 선호한다. ⑤ 다른 젠더의 친구를 강하게 선호한다. ⑥ 소년인 경우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장난감, 게임, 활동을 강하게 거부하고, 난폭하고 거친 놀이를 강하게 기피하고, 소년인 경우 전형적인 여성적 장난감, 게임 또는 활동을 강하게 거부한다. ⑦ 자신의 해부학적 성을 강하게 싫어한다. ⑧ 자신이 경험하는 성과 일치하는 일차적 그리고/또는 이차적 성징을 강하게 소원한다. 그리고 상태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통과 사회적·학업적 또는 기타 기능의 중요한 영역에서의 장애와 관련된다.

◆드랙퀸 이야기 시간(Drag story hour, DSH)

이 기회를 이용하여,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위 "드랙퀸 이야기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드랙퀸이란 여자의 복장과 분장을 한 남자이다.

DSH는 드랙퀸이 3-11세 아이들을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박물관 등에 초청하여 어린이 책이나 어린이용 LGBTQ에 대한 책, 특히 LGBTQ+ 사람이 영웅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책들을 읽어 주는 것이다. 그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증진하고 "다양성"을 교육하고, 소아기 젠더유동성의 이미지를 습득케 하고 또 그 놀이를 하게 해 줌으로 어린이들에게 "화려하고 긍정적이며 수치감 없는" 쿼어 롤 모델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로서 LGBTQ+ 가족이 더 포용되고(inclusive) 확인(affirm)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DSH는 2015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도서관에서 시작하였다. (여기 샌프란시스코는 성행명과 LGBTQ+ 문화의 본산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마약에 의한 쯤비들의 도시로 유명해지고 있다.) 2019년 뉴욕에도 생겼고, 이후 여러 도시의 도서관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장소도 도서관 이외, 학교, 서점, 박물관으로 다양해 졌다. 2017년 DSH의 뉴욕지부는 비영리기관으로 뉴욕 공공 도서관으로 부터 기금도 받았다. 이런 일은 아마도 좌파정부의 정책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이벤트 때문인지, 최근 미국에서는 소아청



소년 젠더불쾌증(트랜스젠더)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당연히 그 아이들은 부모 몰래 성전환용 성호르몬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당연히 DSH는 시작 때부터 격렬한 공공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DSH가 어린이들에게 적절할까 하는 것이었다. 반대론자들은 DSH가 성적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이를 노출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성화(sexualization)하거나 그루밍하는 것이며,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해롭다는 것이다. 또한 DSH를 통해 LGBTQ+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LGBTQ+로 모집(recruit)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행사 자체, 드랙퀸 자신들, 그리고 읽어 주는 책들은 물론, LGBTQ+ 공동체에 대한 혐의와 공격이 나타났다.

또 다른 비판은, 보다 근본적으로, 드랙퀸은 트랜스젠더를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젠더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가 젠더 표현을 이해하는 데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여성성을 희화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즉 (주디스 버틀러가 말하는 바) 드랙 자체는 본질적으로 "수행성"이어서 어쨌든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찬성론자들은 DSH가 어린이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고 "아리석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상자" 밖에서 사고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DSH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도덕적 패닉(drag panic)이거나 또는 우파의 거짓정보에 의해 증폭된 반-LGBT 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 LGBTQ+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자연을 거스리는, 죄 되고 병적인 행동으로 믿으며, 그래서 반대한다. 만일 한국에도 드랙퀸이 등장하여 아이들에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이야기 해 주는 프로그램이 나타나면 처음부터 반대하여야 할 것이다.

성경 암송을 통해 마음에 말씀의 도서관을 만드십시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도서관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도서관과 같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읽은 책들이 담겨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도서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둔 도서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마 13:19).

우리 마음은 창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마음에 그릇에 말씀을 담아두면 마음은 가장 복된 그릇이 됩니다. 성경 암송은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육환경(쉐마)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신 6:6). 연필로 쓴 것은 지우개로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틀로 새긴 것은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새겨 둡니다.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누구를 가까이하고, 무엇을 가까이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요 1:14).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버립니다. 사울 왕은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삼상 15:23, 26). 다윗 왕은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삼하 7:9, 개역한글).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가까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무늬를 결정하고,

색깔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뿌리 깊은 영성》 책을 쓴 후에 받은 질문은 "깊이 있는 영성"이란 어떤 영성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씀하는 중에 예수님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뿌리 깊은 영성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성경 암송에 탁월하셨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영성은 성경 암송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드리시는 중에 마귀의 유혹을 세 번 받으셨습니다. 세 번 모두 암송하고 계셨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마 4:4, 7, 10).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경을 암송하셨습니다.

깊은 영성이란 기본에 충실한 영성입니다. 신앙 생활의 기본은 성경 암송에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을 다집니다. 또한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본은 근본입니다. 근본은 본질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암송한 말씀을 꺼내어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머리에 머물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히 4:12). 말씀을 하나님이 뿌려 주시는 씨앗입니다. 암송한 말씀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성령의 감입니다(엡 6:17).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는 비결이 있고, 비법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코치가 있습니다. 혼자 수업을 하는 것과 탁월한 코치를 만나 수업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잘 기억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공을 쌓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적 학습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암송한 말씀을 기도와 묵상과 영적 전쟁과 전도에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 더욱 지혜롭고, 더욱 성숙해지시길 소원합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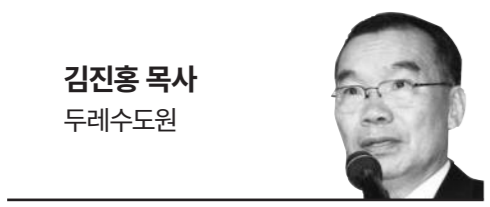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요한계시록 공부: 요한계시록 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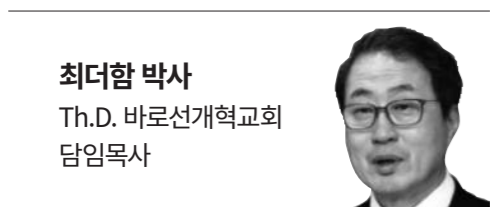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요한계시록 5장이 시작되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일곱 인으로 봉하여졌습니다.
장로 요한은 그 두루마리에 적힌 글을 보고 싶음이 간절하였습니다. 너무나 간절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천상천하에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일곱 인을 뚫 수 있는 분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워 울고 있는 장로 요한에게 24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다음 같이 알려 주었습니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사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때시라 하더라"(요한계시록 5장 5절)
그 말을 듣고 장로 요한이 본즉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영적 권세, 곧 영권(靈權)을 뜻하기에 일곱 뿔이란 엄청난 영권을 뜻하고 일곱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이어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5장 7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구원론: 육신을 죽이라(4)



최덕담 박사
Th.D. 바르셀로나개혁교회
담임목사

누구보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숭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찰시키고자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리를 무참하게 깨뜨리는 기법에 나름 능숙

한 자입니다.
저는 때로 이기적인 선택으로 제 잇속부터 챙기기도 합니다.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일에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의로운 일을 해야 함에도 비겁하게 회피하는 일도 행합니다. 지금은 저희 학교 대책위원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만 실상 저는 처음엔 학교 문제를 못 본 척하고 피하던 자였습니다.
어떤 경우엔 능숙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입니다. 잊지도 않은 일을 제 혼자 상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떠벌리고,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은근슬쩍 꾸미기도 하여 그 사

람의 인격을 깎아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간혹 마음에도 없는 빈말로 다음을 약속하고 상대방과의 만남을 피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잘난 이에 대한 심술궂음과 비아냥과 조롱이 저 마음속 밑바닥에 잠자고 있고, 나보다 못한 이에 대한 비하와 멸시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보다 일처리가 미숙하고 느리고 잘못 일을 하면 답답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바로 이런 자가 '최덕담'이라는 자독한 죄인의 본질이자 실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이 비참한 자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저 목사는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고발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있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더 큰 교회로 가려고 애쓰는 것. 교회에 큰 고기는 없고 작은 고기만 있다고 원망하는 것.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과도하게 책상물림으로 자내는 것. 경건이 아닌 학위에만 착념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옛사람의 특징들입니다.
집사들의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각종 회의에서 당신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버티면서 불쌍한 목회자를 지지해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앙시시의 프란시스(1181-1226)처럼 미소 짓지만 속에는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한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금방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토저 목사는 누구든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어찌 한 샘플에서 샘플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의 입에선 오직 쓴 물만 나올 뿐입니다. <계속>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체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說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 사건의 민낯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미 대선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후(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버틀러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유세 연설 도중 고향이 쓴 총알에 오른쪽 귀를 관통당한 테러를 당했다. 생생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나 미 대선 후보가 저격당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TV 화면엔 어디선가 총성이 언달아 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를 잡고 단상 아래로 몸을 숨기는 모습이 비쳤다. 이어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연단으로 뛰어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싸고, 단상 뒤쪽에 있던 지지자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하는 등 순식간에 유세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굴에 피가 남지 않은 모습으로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피신하는 도중에 몇 차례 오른팔을 들어 간재를 과시하는 모습이 보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영상을 자세히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 내용이 나오는 스크린을 보기 위해 머리를 돌리는 순간 총성이 울리고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를 잡고 단상 아래로 몸을 숙이는 모습이 나온다. 이때 얼굴을 둘러싼 간발의 차이로 피한이 쓴 총알이 귀를 스치고 결과적으로 치명상을 피한 것이다. 그러나 그 총알에 트럼프의 연설을 듣던 정중 한 사람이 무고하게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토머스 매슈 크로스라는 20세 청년은 비밀경호국 요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 공화당원으로 알려진 이 청년이 왜 트럼프를 암살하려 했는지 아직 동기와 배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진 게 없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벌어진 극단의 증오 정치에서 파생한 범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유력한 미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기도사건이 압박한 미 대선 정국의 풍향계를 어디로 돌려놓을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런 폭력범죄가 한 사람의 정신병적 광기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서로를 향해 도 넘은 비난을 퍼부어 대연 시점에서 터졌다든 점에서 정치 혐오와 선동 정치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사회는 젠더와 낙태, 이민자 문제를 놓고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다. 상반된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보다 양 진영에서 거칠고 자극적인 언사가 일상화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상대를 조롱하고 증오하는 저급한 정치로 변질된 게 문제다.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선동 정치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은 린컨 대통령을 비롯해 4명의 현직 대통령이 흉탄에 목숨을 잃은 나라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이 대통령 후보 경선 도중에 암살되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 이후 그 어떤 정치적 암살 시도도 없었던 미국에서 40여 년 만에 다시 정치인에 대한 암살 기도사건이 벌어진 건 정치 양극화가 부른 선동 정치의 폐해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기도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 과연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인가 하는 뼈저린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정치 현실 또한 미국 못지않게 정치 양극화와 극렬 팬덤 현상이 일상화돼 있지 않은가 말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편 가르기와 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은 증오의 싹을 틔우고 폭력을 실행에 옮기는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를 여야 정치인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알아도 모른 척 악순환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로 인해 민주주의의 토양이 오염되고 그 피해가 사회와 국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이치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진흙탕을 방불케 하는 극렬한 내용이 벌어지고 있다. 상대를 물고 뜯고 폭로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없어서 쾌재를 부른다는 말이 나오잖나.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민주당도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사정은 그리 편치 않아 보인다. 소위 '개팔'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포위된 현실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맹목적인 지지 성향을 드러내며 그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막강한 팬덤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민생을 핑계치고 유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국민이 아닌 이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선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는 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최악의 범죄다. 내 뜻과 생각이 다르다고 테러와 폭력 행사로 바꾸려 한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극단적 증오와 폭력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극성 팬덤에 휘둘러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적 폭력에 정치인들이 어느덧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양극화 해소는 커녕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와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당분간 선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저질 팬덤에 기대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우리 사회와 국민이 반드시 기억해 표로 되찾아주는 게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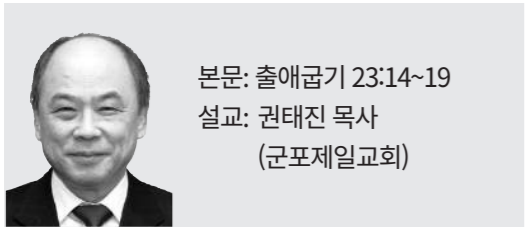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본문: 출애굽기 23:14-19
설교: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절기는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의무 또한 주었고, 순종에 대한 복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항상 동행하고 보호하고 징계하는 부모와 자녀, 양과 목자,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달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23:1-6)
여호와와 목자이자 보호자로서 영원한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브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출23:15)
그날을 떠올리면 출애굽 전후의 상황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상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 절기를 지키기 때 마음을 가지고 나아와야 함

니다
유월절 역사의 중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을 승리의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야곱의 후손의 숫자는 장정 외 여자와 유아를 합해 250-3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출12:37)
한 가정에서 5명이 한 마리를 먹었다면 60만 마리가 출애굽 된 날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졌어도 소멸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절기를 지키는 선민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양의 피는 오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때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농사하여 거둔 결실을 가지고 나아와야 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보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보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합대로 드릴지니라”(신6:16-17)
무교절을 지키기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진 것에 있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75세에 고향을 떠나라 했고 순종한 아브람에게 25년 후, 100세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하실 때도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22:2)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10:37-39)
드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드리는 것이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목회를 하며 점점 깨닫는 것은 이제 나의 행복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성도와 사회에 유익을 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엇을 남기고 갈까에 달려있습니다. 복음이 유익이 있고 국가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오늘의 행복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그때의 사건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대한민국의 해방일과 같이 기쁨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기도와 제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2.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둬들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출23:16)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의 몫이라면 비를 주고 날씨를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교회와 가정도 전반기에 받은 복을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에는 더욱 보람된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절기의 의미와 정신을 알면 절기를 잘 지키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3. 절기를 지키는 것은 택한 백성의 복입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 지니라”(출23:17)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절기를 지키기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네 제물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출23:18)
피는 생명입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무교병과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그날에 다 바치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마루거나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에 드릴지니 너는 열매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출23:19)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레위 족속에게는 성전을 주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과 제사장들은 열한 지파가 내는 십일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와의 전으로 가져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열매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는 것은 잔인한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를 잡을 때도 어미 새끼와 함께 잡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 하리라”(신22:6-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막을 수 없으나 방주를 건 축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는 막을 수 없으나 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으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선민에게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성령충만으로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부, 전공의 1만 명 사직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 속도 낸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은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종 사직 처리 규모는 이르면 오는 16일 집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대로라면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의 중심병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만3756명 중 1111명(8.1%)에 불과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61명뿐이다.
앞서 ‘백’ 병원 등 수련병원 대부분은 지난주 전

공의들에게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 중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공지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1만명 이상은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직하더라도 9월 하반기 수련에는 응시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9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한해 ‘전공의 임용 시험 지원’을 완화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같은 연차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사직 후 1년 후인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현행 지원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2월을 사직 시점으로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를 철회한 6월4일부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내년 3월 복귀는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기

자회견을 열고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필수 의료 공백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복귀하더라도 ‘백’ 등 주요 수련병원과 인기 과목 위주로 채워질 뿐 필수 과목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내과, 외과 등 필수 과목 전공의들은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복귀할 이유가 많지 않다. 필수의료과는 9월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9월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백 등 수도권 병원이거나 인기 과목에 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와 별개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전공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중증 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15% 감축해 진료량도 줄인다. 전공의 중심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병원 진료 체계도 바꿀 예정이다. 김치희 기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인성공유학교와 함께하는

50기 성민청소년복지학교

주제 세계를 품은 청소년

일정 2024. 7. 22.(월) ~ 7. 24.(수)

대상 중·고등학교 청소년

장소 성민원교육관(군포제일교회 비전센터), 현장 실습

문의 (사)성민원 031-397-2051

후원 군포제일교회

프로그램

강의1

‘청소년을 위한 좋은 성품과 성교육’



이명숙 박사
(종근당생명과학 대표)

강의2

‘중독-미디어-악물 예방’



김정희 대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

공동체PG

‘자기이해와 긍정셀프리더십’



양지원 소장
(하음심리상담센터 소장)

봉사활동

‘독거어르신택 가정방문 활동’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 3:9절)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에 특별영성 집회가 있어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특별영성 집회는 말씀 듣다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집회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3서 1장 2절)

담당목사 이영희

- 복신대학교 목회대학원 졸업
- 법무부 인준구조사 교정위원
- 한남중앙노년회(목) 중년노회장
- 한국교회부흥협의회 총재
- 기독교 영성 및 재직훈련 전문강사
- 800회 이상 부흥회 인도
- 미사람 교회의장 겸재민교회 협력운동
- 주영광교회 담임목사
- 성령기도원 원장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와보세요!
(산 속의 기도원같은 집회) ※ 반주자 구함

♣ 집회안내: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
♣ 장소: 주영광교회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36번길 7
연락처: 010-6327-8297

♣ 찾아오시는 길:
서정리역 출구에서 직진하여 도보 3분거리(서정리 지구대 뒤)
송탄 신장 육교 4거리에서 2번 버스 승차 후 서정리역 하차 도보 3분 소요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건.
- 5.토지: 2,756m²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향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너희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풍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부모님께 효도는 삭개오우슬환으로

삭개오 우슬환은 무릎, 관절, 허리, 연골에 도움
남성·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우리집 4번 타자

당귀산수유환은 심장, 신장, 간, 기관지, 폐에 도움

삭개오와 뽕잎환은 중풍, 고혈압, 당뇨에 도움

※ 위 3가지 식품은 당귀산수유환은 약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모두건강장생기세요 기도합니다
조삭개오 목사 올림

삭개오와 뽕나무 건강기능식품
상담 및 부흥성회 문의: 조삭개오 목사
010-9603-0691
간증집회 문의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1.청정지역 입니다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MGBC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덕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기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 방송은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트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장사 장대수 목사
서울시립의교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의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made in NORWAY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원활한 혈액순환!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항산화 건강까지

하루 2캡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중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1020 여성들을 결박하는 거짓말과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1020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



MZ가 뭐길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출현했다고 난리다. 그들은 단지 무례하거나 무지한 세대가 아니다. 이상하고 불편한 세대가 아니다.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죄에 중독된 불쌍한 세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대이다. 낸시 드모스 월게머스와 다나 그레쉬는 <1020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을 통해 세상이 답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에게 성경의 진리가 답을 준다고 확신하며 말한다. 베스트셀러인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의 저자인 월게머스는 거짓말로 남성과 여성을 속여 인생을 망치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귀가 10대와 20대 여성 역시 노리고 있다고 이 책을 통해 밝힌다(그들이 겪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10대 사역자 크레쉬 역시 월게머스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온갖 사탄의 거짓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한다.

이 책은 세움북스에서 두 번째로 낸 ‘거짓 분별 시리즈’로서 첫 번째 책인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의 저자 낸시 드모스 월게머스가 다나 크레쉬와 함께 저술한 책이다. 2008년에

처음 출간된 원서는 2018년 개정되었고, 세움북스는 개정된 책을 번역하여 김설, 류성민 부부를 통해 국내 10대와 20대에게 꼭 필요한 책을 냈다. 첫 번째 책에 익숙한 독자는 이미 두 번째 책의 구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1020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을 1)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 2) 사탄에 관한 거짓말, 3) 자기 자신에 관한 거짓말, 4) 성에 관한 거짓말, 5) 인간관계에 관한 거짓말, 6) 믿음에 관한 거짓말, 7) 죄에 관한 거짓말, 8) 미디어에 관한 거짓말, 9) 미래에 관한 거짓말로 분류하여 천여 명의 1020여성들에게 직접 들은 그들이 자주 유혹되는 25가지 거짓말을 다룬다. 책의 처음은 거짓말의 양상을 분석하고 누가 속이고 누가 속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극복할 수 있는지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모든 거짓말을 다룰 때는 각각 거짓말을 분포하는 진리를 전달하고, 마지막엔 거짓말 속에 아서 중독되는 과정과 진리로 그 깊이 빠진 고통의 상태에서 차츰차츰 벗어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책의 끝에는 거짓말과 그에 대응하는 진리만을 짧게 요약하여 언제든지 이 책을 통해 배운 것을 복습하고 생각과 행동을 빛도록 훈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 책의 첫 번째 독자는 물론 1020 여성들이다. 그들 세대가 직접 선정한 거짓말이 실제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1020 세대가 읽기 편하게 간단명료한 내용과 센스 있는 그림 및 도표를 채워져 있다. 또래끼리 혹은 지도할 교사와 함께(학생부 등에서) 나눌 수 있는 질문도 제공된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1020 남성들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저자가 여성들의 입장에서 더 유익이 되는 문제를 다룬 것은 사실이지

만, 1020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남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책도 있고(혹시 출간될 수도 있지 만), 1020 세대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이 책이 오히려 적절하고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1020 세대 자녀를 둔 부모나 학생부 교사에게도 이 책은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끈대처럼 자기 경험을 자랑처럼 늘어놓거나 어떻게 해야 한다는 요구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성경의 진리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어떤 면에서 지금 1020 세대는 더 많고 다양한 유혹에 노출된 혼란스러운 세대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경적인 지혜와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과거엔 행동만 교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잘못 판단했지만, 지금은 마음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로 잡는 것을 시작으로 건 강한 행동의 변화를 꾀한다. 지금의 1020 세대는 이런 성경적인 방식의 진단과 처방이 더욱 절실한 세대다. ‘무조건 내 말 들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마’가 아니라 왜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상황을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일 것을 사람으로 요구하는 것이 지금 3040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처음부터 바르게 다루는 방식이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1020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은 정말 좋은 상담 교재, 훈련 및 양육 교재, 그리고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이 책의 부제가 바라는 바대로 거짓말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참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유행교회

신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팔복은 영적인 복이자 내적인 복이다. 팔복의 행복은 복음의 객관적 진리로 말미암는 내적인 행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믿음의 나라인 천국을 더 맛 보고 경험할수록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다. 회개의 부제는 공허의 부제이다. 죄에서 돌아켜 그리스도라는 의존하지 않는 자는 길으로 타인을 향한 연민의 모양은 있을 지는 모르나, 실상은 자기 연민이라는 거짓된 공허를 좇을 뿐이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자기 죄에 대한 돌이킴 없이 헛된 자비를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하신다”고 했다.

그는 “바리새인 종교 시스템의 표어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이다. 자기 부정(self-denial) 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 종교가 다 그러하다. 그들 모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분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호와와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즉 스스로 천국을 취할 수 있다고 외친다. 하지만 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회개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며, 하나님에게서 흘러 나오는 영적 축복이라는 것이다. 회개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회개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즉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없다. 평화는 하늘의 은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십자가의 도는 역설로 가득 차 있다. 최고의 멸사에서 최고의 경의를 발견한다.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을 발견한다. 가장 잔인한 형벌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용서를 발견한다. 십자가의 역설은 최악의 빈곤으로부터 최고의 부요를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오늘도 이혼주례를 했습니다



“남편은 살기 위해, 남겨진 어린 두 아이를 거둬 키우기 위해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편에게 어떻게 아픈 아내를 버리느냐고, 아내에게 당신 옆에 내가 있노라고 힘 내라며 말하던 당신이 어떻게 이제 와서 이혼소장을 들이밀 수 있냐고 그 누

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97쪽)

책 ‘오늘도 이혼주례를 했습니다’는 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인 저자 정현숙 판사가 이혼법정에서 경험했던 사람과 사례를 풀어냈다.

이혼주례는 협의이혼 및 이혼조정사건에서 판사가 남편과 아내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뒤 종국적으로 이혼을 선언하는 것

을 뜻한다.

저자는 20년 차 판사이자 20년 차 아내, 세 아들을 키우는 엄마다.

가사전문법관으로서 실제 처리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에 이르는 과정이 담겼다. 또한 소송 중의 상처, 이혼 이후 자녀 양육권 등의 사례까지 다뤘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인생의 큰 문제들을 겪으며 힘들게 버티는 그들에게 판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조수원 기자

7월, 작가들의 말말말



목회자로서 백스터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우울증의 치료였다. 우울증은 우리가 다루는 핵심 주제이다. 그렇다면 우울증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이전에 존재하던 에너지와 열의가 무엇이든 간에 아래쪽으로 압력을 가하여 짜내고 빼내는 것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이 단어는 주로 심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최근 사전에서는 우울증을 ‘극도의 낙담 상태, 또는 병적으로 과도한 우울 상태, 절망감과 무능력감, 종종 식욕 부진, 불면증 등의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머잖아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현상을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트라우마, 긴장, 과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아마도 더러는 더 장기적이고 습관적이며 깊게 뿌리 내린 방식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리처드 백스터, 제임스 패커, 마이클 런디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게 된다. 천국이 회개한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의 행실을 보여준다. 회개 없는 믿음은 행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죄에서 돌아감이 없는 믿음은 행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회개는 행실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회개에는 죄 사람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회개한 사람은 생명, 구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할 심판을 거듭 경고하셨다. 사도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했다. 변화된 행실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변화된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한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산상수훈은 소용없다.

도지원 ‘산상수훈 재조명’



인생의 해답은 단지 음식을 조금 더 맛있게 하는 소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해답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삶의 철학을 성정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단지 어린아이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는 솜사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해답은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가치관이자 지혜이며 사랑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단지 연인을 조금 더 기쁘게 하기 위한 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해답은 무엇을 하더라도 함께 하는 시간 내내 깊고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자 기적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답은 결국 기존의 소스와 솜사탕과 선물의 수준과 차원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것들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천국의 해답입니다.

강형석 ‘인생의 해답’

크리스천투데이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준 경교 (구세군 전주교회)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날 새를 함께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4)

1723년 6월 25일 화요일 아침

성경 이해와 적용

지난 안식일에 보스톤에서 에베소서 6:6-8절을 읽으면서 어떤 일을 단지 의무로만 하지 않고 어떤 위험이나 불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즐겁고 기쁘게 하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면, 내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723년 6월 29일 토요일 아침

기도의 바른 태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바라는 소원이 느껴지지 않는 간구들을 하지 않

도록 주의하자. 형식적인 기도는 내 기도를 점점 빈 마음으로 하게 하고, 하나님께 점점 응답받지 못하게 하며, 점점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게 만들게 된다.

1723년 7월 1일 월요일 정오

결심문 실천의 삶, 안식일을 바르게 보내는 방식

안식일에 신앙적인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주의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부적절함이라도 발견하면 43번째 결심문을 상기하자.

1723년 7월 3일 수요일 밤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한 게으름과 몸과 마음에 있어서 절제의 중요성

나는 조그마한 선은 아주 양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선을 행하는 일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게으르다. 잘못된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에게 대해서는 잘 단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경험에 의해서 몸과 마음의 양면 모두에 엄격한 절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723년 7월 4일 목요일 아침

죽음에 비추어 본 삶의 자세

어젯밤 침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만일 내가 지금 죽는다면,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서 죽게 만드는 것은 신학자들 이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묘사했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했

다. 나는 그렇게 특별한 위험을 체험해 본 적이 없고 내 영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한 이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과 약속들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대 하심으로 위로를 얻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했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하는 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1723년 7월 5일 금요일 아침

50번 결심문 작성, 죽음에 비추어 본 삶의 자세

어젯밤 내가 '만일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해야만 하는 일과 하지 않았던 한 일

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더욱 끈질기게 구하며, 또한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후에 50번째 결심문을 만들었다.

1723년 7월 11일 목요일 밤

좋은 성격 형성의 문제

오늘 교회의 모임에서 너무 조급했다. 오늘 오후 내 삶에 빛과 기쁨이 있었다. 그런 때는 설사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좋은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다른 때도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23년 7월 13일 토요일 아침

결심문 위치 이동

6월 9일의 결심문을 결심문 57번으로 옮겼다. 5월 27일의 결심문은 58번으로, 5월 12일과 7월 11일은 59번으로, 또한 7월 4일 밤의 것은 60번으로, 5월 24일의 것은 61번으로, 6월 25일의 결심문은 62번으로 옮겼다. 그리고 정오쯤 1월 14일의 결심문을 63번으로 옮겼다. 지난날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다.

1723년 7월 18일 화요일 해질 무렵

성경 이해와 적용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2절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라고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한 그 표증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결심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바이블지식IN

저는 새신자입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새신자가 되셨다면 새로운 생명, 영생을 경험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16; 10:10). 여러분의 죄를 사함 받았고 이제 여러분은 새 출발을 하게 되신 겁니다 (로마서 4:7). 이제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베드로전서 1:8-9).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는 뭘 하지? 다음 단계는 뭐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막 들어온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제공해줍니다.

첫째, 새 신자이시거나 성경 읽기를 시작하세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 좋은 많은 번역본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번역본이란 없지만, 이해하기 쉽고 성경의 원어에 충실한 성경을 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대의 인기 있는 번역본 몇 가지를 보시려거든 BibleGateway.com이나 YourVersion.com 같은 웹사이트에 방문해보세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동안에

하신 일들을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GotQuestions.org에 있는 다른 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신 현실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걸 도와드릴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15).

둘째로, 새신자이시니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정해진 규칙이 있고 교회 예배 동안에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데살로니가 전서 5:17). 성경은 하나님을 받았으로 찬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정경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매일 필요한 것에 응답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이들과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이들의 간구에 답을



달라고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기도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마태복음 6:9-13).

셋째로, 새신자로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상징하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복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누가복음 3:22) 자신의 제자들도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사도행전 2:41에서 세례를 실천했습니다.

보통 지역 교회의 인도자들이 세례를 시행합니다. 지역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인도자들은 아마 여러분이 세례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기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새신자로서 다른 크리스천들과 친구가 되세요. 크리스천의 삶은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제일 친한 친구와 시간을 보내시듯 열두 제자에게 많은 사역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도 서로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살라고 부르십니다. 신앙 성경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등 "서로"라는 말이 5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모두 다른 크리스천과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크리스천과의 교제는 지역 교회 성경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사람을 만나기 좋은 장소입니다. 만일 교회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동네에서 다른 크리스천을 만날 기회를 열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섯째, 새신자로서 다른 이들을 도우세요. 크리스천으로 새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는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인도해주시니다. 공동체 안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거나, 마당 일을 하는 이웃을 돕거나, 아픈 친구에게 병문안을 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요한일서 3:17-18).

여섯째, 새신자로서 누군가에게 당신의 믿음을 말해주세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할 만한 일이지요! 아이기를 들어주는 사람 모두에게 여러분 삶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말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나눔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열방을 제사 삼으라고 명령 하셨습니다(마태복음 28:18-20). 오늘날의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명령을 받습니다(베드로전서 3:15-16).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믿음을 성장시킬 간단하지만 유용한 조언이며, 크리스천이 되거나 크리스천으로 남기 위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공로와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8-9). 여러분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빌립보서 1:6).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갯케스튼스 제공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폭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침향 16%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중량용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향의 진향 정성, 광동 쌍회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몰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아이 못났던 한나, 첫 아들 사무엘을 드렸더니...

기도의 사람, 지도자의 모친 한나



송태훈 목사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사사시대 말기, 이 땅에 살았던 기도인 한나는 '은혜' 또는 '은혜'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이름의 여인이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은총으로 일관된 것을 성경 저자는 그녀의 이름을 '한나'로 명기하므로 특별히 소개한다.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을 성경 저자가 일부러 기록하므로, 그녀가 평생 신실한 신앙을 마음에 지니고 살았다고 선포해 준다. 사실 성경은 여자의 이름을 지면에 명기하는 것을 보편화시키지 않고 있다.

기도의 사람 한나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속 족속의 언덕)에 살고 있던 경건한 레위인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명이었다. 매우 강박한 사사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한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판관)로 활동했던 민족 지도자 사무엘의 모친이기도 하다.

사무엘의 부친 엘가나의 첫번째 아내요, 정실인 한나는 원래부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녀였음에도,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엘가나의 두번째 아내 브리나는 그런 남편의 편협된 태도를 못 마땅히 여겨 한나를 괜히 미워했다. 화날 때마다 한나의 약점인 불임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매사를 부정적으로 몰고 넘어졌다. 두번째 아내 브리나가 한나를 비난하고 시기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한 남자의 점으로서 열등감에서 비롯됐지만, 특별히 남편 엘가나가 자신보다 갑절이나 되는 관심과 사랑을 한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생긴 감정적 반응이었다.

한나는 시간만 나면 여호와와의 회당이 있었던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했고, 미리 준비한 흠없는 제물을 바치며 최고·최선의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녀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 하겠나이다' 라고 절규하며 서원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면 나실인으로 바쳐서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겠다는 중차대한 선언이었다. 한번 나실인이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십자가와 같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같이 살던 이웃과 친지들은 한나가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저주로 생각하며 늘 그녀를 향해 수군거렸다.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 여호와 신앙의 사람 한나는 그토록 야속한 사람들의 원망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아

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소연했다.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향해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 하노' 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엘리 제사장 한나가 실로의 회당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낮술에 취한 줄 오해할 정도였다. 한나의 마음 속에 있던 진실한 소원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녀의 기도응답할 것을 말하며 그녀에게 희망을 줬다. 불임녀로 살던 한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 상달됐고 때가 되매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아들을 낳았다.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 때까지 한나는 실로에 있는 회당에 올라가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관리와 신앙 교육을 다했다.

아들 사무엘이 3살 정도 돼서 젖을 떼자, 여호와께 약속한 대로 실로에 있는 회당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종, 나실인으로 바쳤다(삼상 1:3).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엘리 제사장의 고급 교육을 오랫동안 받게 됐다. 한나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실로까지 유학을 보냈던 것이다.

이후 한나는 태의 문이 열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다(삼상 2:21). 사무엘이 없는 빈 자리를 다른 자녀들이 메웠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을 온 마음으로 감사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항상 기도한 사람 한나는 장차 메사야가 이 땅에 출현할 것을 예언하는 영성 있는 찬송도 기도문으로 만들어 올려 드렸다(삼상 2:1-10). 그녀의 입에서 나온 찬미는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눅 1:46-55)와 비교될 정도로 탁월한 작품이었다.

한나가 탁월한 지도자 사무엘을 출산하기까지 육적으로는 매우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평화로운 목가적 광경을 연출했다. 기도로 이룬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세가 이 땅에 탄생할 때를 생각해 본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출생은

주전 15세기 출애굽 사건과 같은 새 혁명의 시대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종언하고, 새로운 선진 왕정시대를 여는 리더가 된 것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 예견된 것이었다. 민족 공동체를 성경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경건한 지도자의 모친으로서 전형이 그녀의 출산 배경과 몸이 밴 여성으로서의 품위에서 느껴졌다.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며, 오직 기도로 미래를 준비했던 한나의 영성이 그녀는 물론 그녀가 속한 국가공동체 마저 살려준 것이다. 오늘날도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넉넉한 능력이 그 속에 농축돼 있다. 연약한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 매사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혼란스런 오늘의 국가 및 사회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신실한 기도의 사람을 애초로 찾고 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의인

권혁승 박사의

날마다 말씀따라 새롭게(75)



권혁승 박사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시 92:12)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의 번성함에 비유되고 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번성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라흐'는 나무줄기에서 가지들이 뻗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단어가 '흥하다'로 번역되기도 하였다(잠 14:11). 의인의 번성함이 종려나무에 비유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악인은 풀의 흥왕함에 비유되기도 한다. '악인들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시 92:7) 악인의 흥왕은 풀과 같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곧바로 시들고 말

지만, 의인의 번성함은 종려나무 같이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다.

종려나무가 지속적으로 번성하는 이유는 뿌리가 여호와와의 궁정에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여호와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시 92:13) 여기에서 '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발'은 수동태 분사로서 다른 곳에서 옮겨 심겼음을 의미한다. 같은 단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도 사용되고 있다(시 1:3). 이는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종려나무가 더욱 아름답게 돋보이는 것은 자라는 곳이 삭막한 광야이기 때문이다. 주로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는 크게 성장하며 번성한다. 또한 모든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것이 특징인데도, 종려나무는 계절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록수다. 그것은 종려나무의 뿌리가 오아시스 샘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고통은 오아시스 샘물의 다른 표현이다. 의인들 역시 사막과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



가지만, 생명의 뿌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의인의 삶은 울바로 살아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종려나무는 많은 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통계에 의하면, 종려나무 한 그루가 연간 130kg 내지 180kg의 열매를 거둔다고 한다. 그런 종려나무가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50년이 넘어서부터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의 줄기가 굵어져, 양분을 더 많이 빨아들이면서 외부의 열기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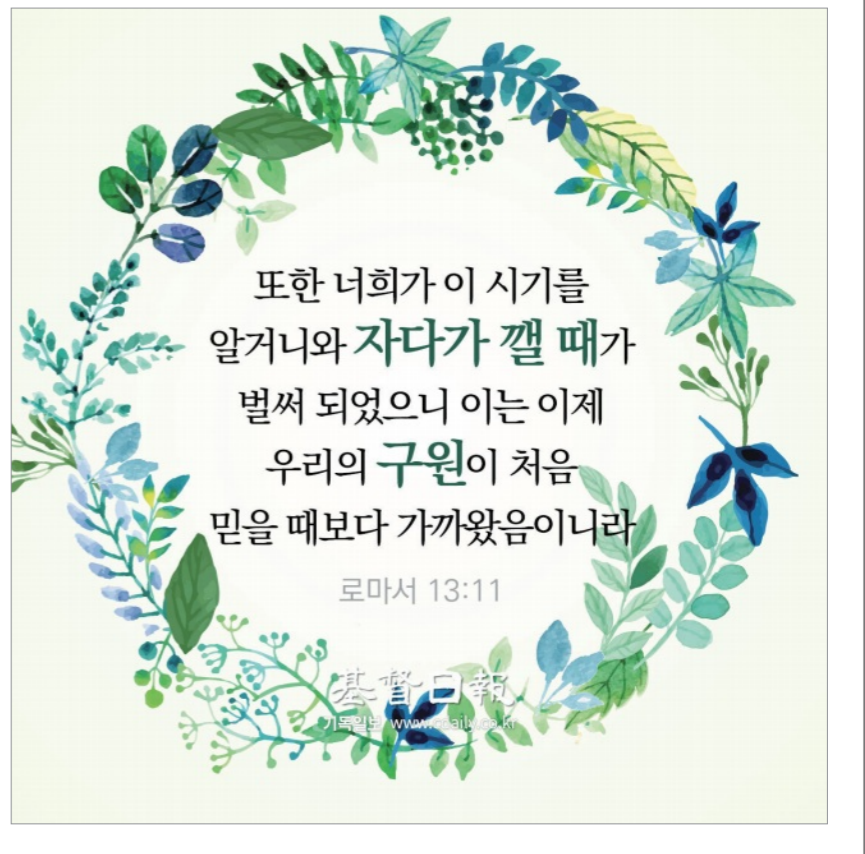
종려나무의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영육 간의 건강을 의미한다. '빛이 청청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라얀'은 나뭇가지가 푸르고 잎사귀가 풍성하다는 뜻이다.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생산성과 영향력이 넘친다는 뜻이다. '진액이 풍족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다센'은 '살이 찌다'라는 뜻인데,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건강함과 넘치는 생산력은 자연스럽게 풍성한 결실로 이어진다. '결실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누브'는 주로 시적 표현에 등장하는 단어로서 '열매를 맺다'는 뜻이다.

신앙은 성장과 성숙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신앙은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새 생명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살아 있음의 명백한 증거는 성장이다. 생명의 성장과 성숙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성서의 인물들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담당하였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출애굽 영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는 종려나무로 비유된다.

그런 종려나무의 모습은 곧 여호와와의 정직하심이다. "여호와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시 92:15) '정직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사르'는 '곧고 바른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건강한 삶과 풍성한 결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요 복이다. 하나님과 생명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의 청정함과 진액의 풍족함과 결실의 풍성함이 저절로 주어진다. 그것이 여호와와의 정직하심이다.

은혜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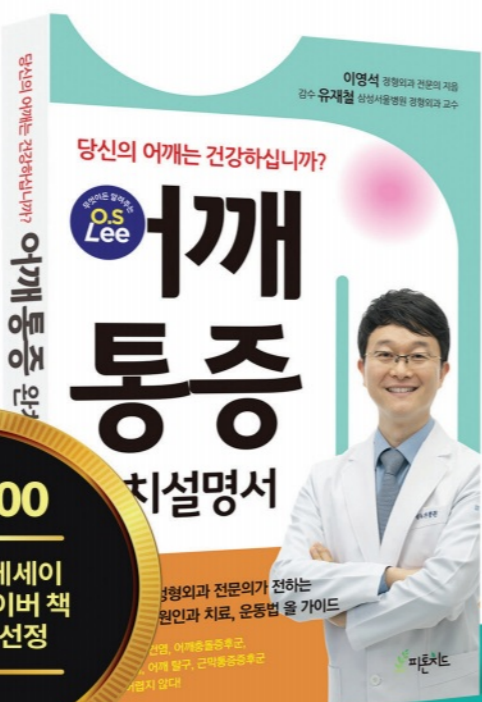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3:11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 가정 씨앗이 뿌려질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광활합니다. 너무나도 커서, 같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토양, 삶의 방식과 문화 모두가 다릅니다. 특별히 자연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는 네바다와 캘리포니아를 다녀보면 삭막한 사막을 4시간 가량을 달려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나름대로의 맛과 풍경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무미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부나 북부지역을 다니다 보면, 드넓은 평원(prairie)이 펼쳐집니다. 삭막하고 건조한 광야가 아닌, 푸르른 벌판이 마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유행가 가사 하나쯤 떠올릴 만한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풍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푸른 초원 위에는 울창한 나무숲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저, 넓고 비옥한 평원에 높다란 세코이어나 나무와 같은 멋진 나무는 왜 한 그루도 보이지 않고, 널따란 목초지 초원만 펼쳐져 있을까? 그런 나무들이 심겨진다면, 엄청나게 크고 멋있게 자랄 수 있을 텐데...' 그런 의구심으로 초원을 바라보다가, 어느 지역에 들어서면서는 가끔씩, 여기저기에 나무숲의 군락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런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 그런데 왜 저곳은 변변한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초원뿐일까?' 여러 생각이 오가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큰 나무가 심겨진 곳



에는 그 나무를 중심으로 씨앗이 퍼져 나무의 군락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그런 나무가 없는 것은 그곳에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심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없을 거야. 뭐 이런 결론인데, 만일 이것이 맞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너무나 크다고 믿어집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나 교회에 그런 씨앗, 즉 복음이나 사명, 위대한 꿈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라서 씨를 맺고, 그 씨가 퍼져서 여기저기에 복음의 숲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 꿈을 그려나가며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이 마침내 열매를 맺고 씨앗이 퍼져서 그것이 빛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타는 비행기 역시, 라이트 형제의 '실현 불가능한 작은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은 불가능 일이라고 포기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 타는 것을 포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

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꿈을 꾸고, 씨앗을 심었다니 십수 년이 지난 오늘, 작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이제 다시 누군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또 다른 무성한 군락지를 이루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씨는 죽은 씨앗이 아니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며 새로운 transition이라는 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비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향유옥합

생각하는 믿음을



지난 시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인 폴 발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함석헌 선생님은 혼돈에 빠졌던 시대에 한국 사회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들은 생각의 힘을 믿었습니다.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되는대로 사는 사람은 욕심만이 있을 뿐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생각 없는 가정은 좋은 가정을 이루지 못 합니다. 되는대로 사는 백성들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방향을 잃

은 채 혼돈과 다름, 무질서한 사회를 만듭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폭력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종교도 미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맹목이 됩니다. 이성의 빛을 잃은 맹목적 종교는 미신이 되며 이성을 넘지 못하는 종교는 초월의 빛을 잃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 이 맹목성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게 해야 합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교회오빠

주의 마음을 품으라! (2)

겸손! 겸손! 겸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속에서 병자와 약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 빵을 먹고 침뱀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 해졌는데, 그때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자극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런 겸손은 모두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능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극단의 우월감은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비워야 합니다. 나의 우월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약 4:10).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

것은 한 인간의 꿈같은 야망이었습니다. 그 야망의 탐은 높고 견고했으며 좁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비웠습니다. 약조건 속에서 나를 돌아볼 때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음을 알고 비우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께 맡기니 그 성은 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습니까. 자극히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아멘!

나를 비우자!

우리는 모두 커다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 "마음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자극히 선하고 탁월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삶의 버팀목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열등하고 무

능력의 야망(?)을 비우고!!! 나에게서 목회(?)의 커다란 비전이 있었습니까. 그 비전은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평신도를 재우는 깨어있는 목회"입니다. 자극히 선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한 인간의 꿈같은 야망이었습니다. 그 야망의 탐은 높고 견고했으며 좁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비웠습니다. 약조건 속에서 나를 돌아볼 때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음을 알고 비우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께 맡기니 그 성은 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습니까. 자극히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아멘!

성경상식

므두셀라(Methuselah)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들은 무척 오래 살았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노아의 할아버지 므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다. 그래서 므두셀라는 장수의 대명사로

간주된다. 더욱이 창세기 5, 6장에 언급된 수명과 연대를 믿는다면, 므두셀라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대홍수 때문에 죽었다. 대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은 크게 줄었

다. 창세기 6:3은 신이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제한했다고 말한다. 수백 년 뒤에는 70살로 더 줄어 지금과 비슷해진다. 과학소설가 로버트 하인라인의 1958년 소설 『므두셀라의 자식들』은 유전자 조

작으로 엄청나게 오래 살게 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조지 버너드 쇼의 5부작 희곡 『므두셀라로 돌아가라』는 에덴동산에서 31920년도까지의 시대를 다루고 있다. 들녘 출판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각 key에 따른 찬양곡들의 특징 분석



기타로 찬양인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key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C key, D key, E key, F key, G key, A key, B key

이 중에서 F key는 일단 1도 화음이 하이코드에 속하는 F 코드이고, IV도 화음이 Bb 코드라는 매우 잡기 힘든 코드가이기 때문에, 기타 연주자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key입니다.

마찬가지로 B key도 상당히 잡기 힘든 코드입니다. 따라서 찬양인도에서 주로 쓰이는 key는 실제적으로는 C, D, E, G, A의 다섯가지 key이며, 다른 key들은 카포를 활용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key들에 분포된 찬양곡

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저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콘티 작성 시의 참고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1. C key의 특징 분석

Ckey에는 주로 클라이맥스에서 '높이 올라가는 곡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같은 경우는 e음까지 올라가는 대표적인 하이톤 곡입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느린듯하면서도 큰 성량을 요구하는 경배와 찬양 곡들이 많은 편이며, 찬송가 중에서도 윌키가 D, Eb key이지만 음이 높기에 C key로 낮추어 불러야 하는 곡들도 다수 있습니다.

2. D key의 특징 분석

D key에는 주로 조용한 묵상곡들, 고백적인 곡들 및 경배와 찬양 곡들이 많

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D key곡은 목소리가 잠긴 아침에 부를 때 무난하며, 베이스 라인도 가능하므로 기타로는 아르페지오 기법으로 연주하는 것이 D key 곡들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E key의 특징 분석

E key에는 모던 스트로크 계열의 경배와 찬양 곡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칼립소 계열의 경쾌한 템포의 찬양들도 많습니다. 또한 교제 찬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도 다수 있습니다. <빛 되신 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찬송가 중에서도 E key로 낮추어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이 많은 편입니다. E key는 핑거링 연주가 힘든 편에 속하며, 대신 기타 연주의 특성

상 오픈 코드를 극대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key이기 때문에 아르페지오보다는 경쾌하고 맑은 울림의 스트로크 연주가 어울립니다.

4. F key의 특징 분석

기타 주자들에게는 F key는 하이 코드가 많이 연주하기에 부담스러운 key입니다. 따라서 보통 E나 G로 전조하여 연주하거나 카포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F key에는 조용한 경배와 찬양 곡들이 많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황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등이 대표적인 F key 곡입니다.

5. G key의 특징 분석

G key 곡들은 다양한 리듬의 곡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배와 찬양 계열의 곡들과 칼립소, 16비트 계열의 곡들이 다수 있습니다. 부르기에 무난

하고 남녀가 함께 부르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많은 곡들이 G key를 가지고 있습니다. 템포가 상당히 다양한 것이 특징인데,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와 같이 빠른 곡들도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와 같은 느린 곡도 있습니다. G key는 아르페지오 연주가 어렵지 않으며, G-C2-Dsus4 계열의 코드 패턴을 활용할 수 있어 스트로크 연주 시에 경쾌한 음을 내므로 초보자들이 콘티를 짤 때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key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A key의 특징 분석

A key 계열의 곡들에는 소리내어 선포하는 곡들이 많습니다. 모던 스트로크 계열의 빠른 템포 곡들도 다수 분포하고 있는 편이며, 꽤 높은 음까지 올라가는 곡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은 아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등의 곡들이 대표적인 예이며, <부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와 같이 음이 많이 올라가는 곡들도 있습니다. A key는 아르페지오 연주가 힘든편에 속하므로, 역시 E key와 마찬가지로 경쾌한 스트로크로 연주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성환

1982년 11월에 출생하였고 2008년 2월에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경영학 학사로 졸업하였으며 아마추어 기타 연주자로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연세대학교 예수전도단, 그리고 퍼듀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소모임 찬양 인도를 약 10여 년 정도 담당하였다.

찬양의 능력 3

지금까지 우리는 적들에 대해 살펴봤고, 하나님이 그 적들을 대항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아보자.



저드슨 콘월

시편 149편은 우리의 무기가 성공적으로 "이것으로 못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관철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수 있다고 전한다(7-9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

님이자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는 걸 어려워한다.

찬양을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처벌과 결박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개념에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개념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신앙적이며 당신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우리는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또 11장 17-18절에서 이십사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

셨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

하나님은 당신이 복수의 영을 갖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마음이 당신을 파괴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복수심을 다룰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7-28)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를 기억하고 이 마음을 붙들고 있을 정도로 강하며, 만일 그들이 너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에 복종하지 않으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나는 너를 위해 이를 다스릴 것이다."

교회사를 통해 이방에 의해 죽임 당한 수천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혹은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화』(Book of Martyrs)에 기록된 하나님을 간증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에게 가한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볼 때, 또 세계 목사들을 향한 나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한 일들을 볼 때면 내 속에서는 "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되갚아주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라고 소리치게 된다.

내가 거절거나 냉담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나는 사실 꽤나 어린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파멸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계속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정당하신 분일 뿐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들에게 결국은 원수를 갚으시는 것임을 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

을 알기에, 그리고 처벌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기에 나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공의가 아직 그들을 향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있는 위치는 복수나 심판을 간청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에 하나님께 높은 찬양이 있게 하는 곳이다.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실 것도 안다.

◆저드슨 콘월

Judson Cornwall, 1924-2005,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모든 영역에 탁월하게 적용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매우 존경받는 선생이자 작가이다. 30년간은 개교회의 목사로, 12년간은 여러 집회와 사경회 등의 강사로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등 거의 50여 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다. 그는 평생의 사역기간 동안 50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이 중 많은 책들은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기독교 잡지와 정기간행물 등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설아 옮긴이

성신여자대학교와 한동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삼성전자, SDS 등에서 인하우스 번역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프리랜서 전문 통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찬양한 모퉁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해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 예배하는 삶, 마커스워십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천여세대
新주거타운

바로 앞
용인시 행정타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바로 앞
초·중 통합학교!

반세권 프리미엄을 소유할수있는 마지막 기회!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운동장·송담대역

김량장역

이마트

고진역

명지대역

역삼초·중 통합학교(가칭)

신대지구

역북 서히스타힐스
프라임시티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중

★ 계약금 1천만원 ★

★ 중도금무이자(일부세대) ★

★ 전매제한 6개월 ★

용인의 모든 프리미엄의 길이 **역북 서히스타힐스 프라임시티로 통합니다**

역북 서히스타힐스
프라임시티

- 미래비전프리미엄** 세계최대 반도체클러스터 수혜단지, 삼성 360조 투자, SK하이닉스 122조투자,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 교통환경프리미엄** 광주-용인 경강선 연장(예정),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예정), GTX-A 용인역 개통(예정)
- 통합교육프리미엄** 지구내 초중등 통합학교 신설(예정), 반경 1km 용인고등학교, 차량 5분 거리 역북동 학원 밀집가
- 생활환경프리미엄** 360° 돌봉산 숲세권, 이마트, 롯데시네마, 세브란스병원, 용인시청, 용인시법원, 용인동부경찰서

방문고객 경품 이벤트

기간 2024년 7월 20일(토) 시간 별도 안내



문의 **1588.5036** 총 912세대 (일반분양 134세대) 59 A·B | 74 A·B | 84 A·B·C 시흥 역북지역주택조합 시흥 서희건설 신학 무궁화신탁